



스승의 날 맞아 서울대인 사랑과 단결 확인



동창회 謝恩 골프대회 모 교 師弟 체육대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교수와 본회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5월 2~13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등 모교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기대회와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14면>



제8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10일(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농생대 75-1동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제8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오는 7월 10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1년 7월 10일(일) 09:30~17:00
-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농생대 75-1동(제3식당) 3층
- ◆참가대상 :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단, 아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 ◆진 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 棋力別 64명 이내
- ※ 총 호선(팀 6점반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 ◆신 청 : 2011년 6월 30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로 신청
- ◆참 가 비 :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오시는 방법
- 승용차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직진하다가 오른쪽 농생대 건물 주변에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5511번, 5513번을 타고 관악캠퍼스 내 농생대 건물에 하차
-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관악출추

최근李明博대통령은 특정대학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공직사회의 학연주의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이 말한 특정대란 서울대를 가리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출신들로서는 곱씹어 생각해 볼만한 지적이다.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의 고위직 점유율이 과다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차관의 경우 김泳三정부에서는 65.7%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그 후 서울대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李明博정부에서는 40.8%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40%라는 비중은 엄청 높은 비율이다. 중앙부처 1~3급 고위 공무원의 2001년 서울대 출신이 31%이던 것이 2010년에는 28.9%로, 10년 사이 2%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법조계의 경우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울대 출신들에 의해 독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4대 이후 역대 국회의원

의 36%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대는 최고 권력집단의 재생산 장치”라니 “서울대 출신은 이 나라의 성골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택된 소수가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권력 분산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것이 다원사회를 융화로 이끌고, 창의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때문에 서울대의 높은 공직 점유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인사정책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서울대 출신이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문끼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서로 밀어주고 키워주며 ‘공생’해

고위직 過점유는 잘못인가

온 덕으로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반성해볼 일이다. 학벌 이기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려 유능한 인재를 잃게 한다.

솔직히 말해, 서울대 학벌문제를 우리 동문들이 태클하기엔 좀 껄끄럽다. 또한 적절한 해법도 찾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 시도할 만한 일이다. 학벌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동문관계를 이유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金好俊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1972년 철학과에 입학한 내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낸 등록금은 3만2천원이 아니었던가 싶다. 아마 2011학번 후배가 낸 1학기 등록금이 2백60만원이었다니 39년 만에 등록금은 8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간에 물가가 80배가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물론 과거에도 대학등록금이 싼 것은 아니었다. 시골학생의 경우 소를 팔아 대학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일부 사학의 경우 우골탐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는 대다수 고교졸업생이 대학에 가는 시대는 아니었다. 대학등록금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고교졸업생이 대학에 가는 시대가 된데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서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탓인지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MB정부는 대학등록금에 무심한 듯 했다.李明博대

통령은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당선된 이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주장에도 포퓰리즘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내년으로 총선과 대선이 다가왔음인가. 집권당인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당내 친이계 등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냉소적인 만큼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등이 반값등록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살인등록금’과 ‘반값등록금’

鄭世溶

내일신문 논설주간

본보 논설위원



신주류가 반값등록금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반값등록금’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돼야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학이 구조조정이 절실한데 반값등록금으로 대학포화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다. OECD 가입국가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으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사실 반값등록금이라고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제히 반값으로 떨어뜨리라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우수하나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충하고 소득 중하위층의 경우 등록금의 상당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잘 협의해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녹음이 우거진 대학캠퍼스에 ‘살인등록금’, ‘미친등록금’ 같은 플래카드가 사라졌으면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모여 들었다는 서울대에 등록금 걱정을 하는 학생이 이제 없었으면 한다.

관악시단

형제

朴賢洙(대학원93-97)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거울 속의 내 모습에

형이

때로는 동생이 겹쳐 보인다

가난한 화가의

덧칠한 캔버스 아래 어리는

회미한 초상처럼

어느 것이 밑그림이고

어느 것이

덧칠한 그림인지는 아무래도 좋다

아니면

둘 다 덧칠이고 밑그림은

신이 가지고

있으리라는 반전도 괜찮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이

언젠가 한 번 살아본 듯

낮익을 때면

거울 속에

누군가

자주 겹쳐 보인다는 것이다

동문칼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 콘텐츠를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콘텐츠(contents)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오늘날 콘텐츠산업은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한다. 1세대 콘텐츠는 종이 활자, 라디오, TV, 극장을 통해서 이용하는 아날로그 세대이다.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시대를 맞이했다.

21세기에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즉 이용자가 곧 제작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나아가서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Ubiquitous)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TV나 전자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정보가 대량적·집단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콘텐츠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調停한다. 위원회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해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이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 게임, 제2분과 에듀테인먼트, 제3분과 방송영상, 제4분과 출판·음악·공연·미술·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광고·패션·공예품·데이터베이스 등 일반 콘텐츠 분야로 구성된다. 예컨대 연예산업종사자 사이의 분쟁도 콘텐츠산업적 차원에서 조정된다.



成樂寅

(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무릇 모든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현대 법치국가 사법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에 법원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활성화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사자가 조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분쟁해결

국제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2012년에는 약 1조5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매출규모는 2005년에 약 57조3천억원에서 2009년에 약 69조원으로 해마다 4.8% 정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기구다. 진흥원은 콘텐츠의 산업적 진흥을 촉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조정한다.

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통신 즉 인터넷을 이용한 분쟁해결도 가능하다.

지난 4월 27일에 위원회가 문을 연 이래 벌써 수십 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만큼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가 국부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밑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林光洙회장은 시상식에서 “모교를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과 동창회 임원을 한 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3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李政宰교수·金一燮동문 우승

스승의 의미 되새기며 동문·교수간 ‘화합의 장’ 마련



메달리스트 崔又天동문(左)



남자 롱기스트 李鶴來교수(右)



남자 니어리스트 李洪九동문(右)



여자 롱기스트 崔스미 교수(右)



여자 니어리스트 李吉女동문(右)



동창회장배 李政宰교수(右)



모교 총장배 金一燮동문(左)

본회(회장 林光洙)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15일 인천 그랜드CC에서 제13회 사은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모교 교수, 본회 임원 등 총 82명이 참가해 22개 조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경기 직후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시상식 및 기념 만찬에서 林光洙회장은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모교를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과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동창회 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식과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면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인 우리 서울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모교 李昇鍾연구부총장은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고속성장을 하는데 대학의 R&

D가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인만큼 연구성과가 교육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배제의에서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교수는 학생의 마음을 살피고 키워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동창회의 모토가 참여·협력·영광인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 영광으로 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나눔이 약하다는 게 모교 졸업생들의 결점이지만 함께 나눠서 보람 있는 서울대를 만들

자”고 말했다.

본회 朴英俊감사의 경기 결과 발표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이 모교 교직원 중 우승을 차지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李政宰(농공학69-73)교수에게 ‘동창회장배’를, 모교 李昇鍾부총장이 동문들 중 우승을 차지한 한국형 경영연구원 金一燮(경영64-69)대표에게 ‘모교 총장배’를 수여했다. 메달리스트는 그로스 70타를 친 고려대 崔又天(기계공학78-82)교수에게 돌아갔다.

롱기스트상 남자부문은 모교 李鶴來(임산가공75-79·2백55m)학생처장, 여자부문은 모교 간호학과 崔스미(간호76-80·1백81m)

교수가 수상했다. 니어리스트상 남자부문은 두산인프라코어 李洪九(기계설계 75-79·4.9m)전무, 여자부문은 경원대 李吉女(의학 51-57·5.3m)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본회 金鍾燮부회장이 기증한 디지털피아노의 행운은 이날 롱기스트상을 받은 모교 李鶴來학생처장이 당첨돼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李鶴來학생처장은 디지털피아노를 모교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에 기부하며 “학생처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에 좋은 일을 했으면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피아노를 선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 李昇鍾연구부총장이 재학시절 은사였던 李基俊 前총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智>

<조별 우승자 명단>

▲OUT코스

1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鄭正佶(행정61-65)원장, 2조 : 행정대학원 盧化俊(섬유공학61-65) 명예교수, 3조 : 기계항공공학부 姜信榮(기계공학69-73)교수, 4조 :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치의학56-60)이사장, 5조 : 치의학과 金泰佑(치의학 77-83)교수, 6조 :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대표, 7조 : 체육교육과 鄭哲秀(체육교육 68-72)교수, 8조 : 간호학과 朴賢愛(간호76-80)교수, 9조 : 농생대 任廷彬(농경제85-89)기획부장, 10조 : 자연대 申錫敏(화학81-85)대의협력 부학장, 11조 : 한국항만협회 李在福 (ACAD 21기)前회장

▲IN코스

1조 : 국어국문과 權斗煥(국문66-70)교수, 2조 : 평의회 朴彬沃(지리68-72)의장, 3조 : 음대동창회 徐桂淑(기악 56-60)회장, 4조 : 약대 徐永鉅(약학71-75)학장, 5조 : 공대 李昊武(제어계측80-84)연구부학장, 6조 : 모간 朴成勳(기계공학58-63)대표, 7조 : 나노카보나 申一汕(AMPFRI 14기)대표, 8조 : 한성대 尹在建(기계공학77-81)교수, 9조 : 국제대학원 朴泰鎭(경제71-75)교수, 10조 : 피터앤모어서 울골프 李官龍(기계설계87-91)대표, 11조 : GM코리아 朴炳完(기계공학82졸)부사장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회장 : 골프장 사용 및 식음료 일체, 수건 세트 1백10개
- 李吉女부회장 : 머그컵 세트 1백10개
- 金鍾燮부회장 : 디지털 피아노 1대, 기타 3대
- 鄭八道부회장 : 쌀(10kg) 33포
- 申一汕 前AMPFRI동창회장 : 구이용 숯판 12개

법대동창회

법학관·李 僑열사 동상 건립 추진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5월 25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慶漢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법학관 건립 모금 운동과 1회 졸업생인 李 僑열사의 동상

건립을 모교와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교 법대 鄭宗燮학장은 “임기 중 새 법학관을 건립하고 아시아범태평양 연구소를 창립하는 게 목표”라며 3백억원의 재원 모금을 위해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법인화와 총동창회의 2대 역점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태석민(太完善동문 아들)씨, 李大淳·林光洙·鄭宗燮·金慶漢·黃迪仁·金東虎·鄭城鎮동문

이날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으로 故 太完善(경성법전

36졸)前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모교 黃迪仁(법학52-57)명



모교 朴恩雨학장, 수상자 曹章煥·柳順吳·鄭金柱동문, 鄭潤煥회장

농생대동창회

옛 수원캠퍼스서 ‘상록의 날’ 행사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5월 14일 수원시 서둔동 옛 농생대캠퍼스에서 동문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정기총회, 제9회 상록인 대상 시상식, 77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축하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는 咸泳秀(농학48-56)·李斗珩(농학53-57)동문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명예의 전당에는 1백94명의 헌정자 동판이 부착됐다.

총회 후 이어진 상록인 대상 시상식에서 曹章煥(농학53-60)前단국대 총장, 모교 농생대 柳順吳(농화학55-61)명예교수, 동창회 鄭金柱(농가정63-67)상근부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또 최근 대학 총장, 기관장 등으로 취임한 동신대 金畢植(농가정61-65)총장, 李敦求(임학65-69)산림청장, 고려대 金炳喆(축산70-76)총장, 한국감정원 權鎮鳳(농공학71-78)원장, 에너지연구원 金鎮禹(농경제73-77)원장, 金台鎬(농업교육80-85)국회의원, 廉泰英(농화학80-84)수원시장에게 축하패를,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삼립식품 徐南錫(식품공학73-77)부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77학번 동기회(대표 俞在文)와 50학번 동기회(대표 具昇會)에서 각각 5백만원과 1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상록문화재단에 기부했다.

모교 음대 여학생들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연 ‘77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에서는 지난 시절을 회고하는 동영상 상영과 함께 스승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77학번 동문들은 무대에 올라 ‘상록의 아들’과 ‘스승의 은혜’를 열창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주관을 맡은 77학번 동기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기금 4천2백만 원을 모금했다.

공대 여성동문회

후배 재학생에 장학금

공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李禎娥)는 지난 5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 소담마루에서 모교 朴順子명예교수를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1년 만에 만난 50여 명의 동문들은 우거진 캠퍼스의 신록을 만끽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이날 ‘SEW(SNU

Engineering Woman) 네트워크 펠로십’ 장학생으로 이승희(원자핵공학 4학년)·최민아(컴퓨터공학 3학년)양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SEW 네트워크 펠로십 기금은 지난 2006년 제정돼 현재 2천여 만원이 모금됐으며 매년 2~3명의 공대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진 특강 시간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崔美愛(화학공학81-85)원장, 이화여대 林惠淑(제어계측공학82-86)교수, 유한킴벌리 文秀珍(섬유고분자공학86-90)이사가

나와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생활 Tip’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현재 공대 여성동문회는 1천2백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매년 한 두 차례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인터뷰를 매월 게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李禎娥(컴퓨터공학78-82)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성대 정보통신공학과 趙惠卿(제어계측83-87)교수가 총무, 서울시 李旻娥(건축95-99)한옥정책연구팀장이 회계로 봉사하고 있다.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朴熙子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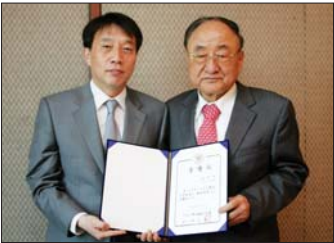
‘백세 아버지 - 산책’, 2.5x1.5m, 무명천, 물감, 사진 인화물, 낙엽, 2008

〈작가약력〉

- ▲1964~1969 모교 회화와 졸업
- ▲1968 서울 신문회관 회화전
- ▲1973~1997 신체제전

- ▲1982~2010 호을회전
- ▲1984~2010 인천여성서양회전
- ▲한국미술협회, 호을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회원
- ▲現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이사

조선일보 金昌均위원
본보 논설위원에 위촉



본회는 지난 5월 2일자로 조선일보 金昌均(경제80-84)논설위원(사진 左)을 본보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金동문은 조선일보 사회부·경제부·국제부·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역임했다.

관악언론인회

총장 공관서 모임 가져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5월 9일 모교 吳然天총장 초청으로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서 각 언론사 간사단 모임을 개최했다.

관안회와 모교는 법인화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관악언론인회장인 동아일보 裴仁俊주필, 간사인 SBS 金亨珉보도제작국장,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일보 李啓聖논설위원, 중앙일보 金鎮國논설위원실장, 연합뉴스 吳在錫논설위원실장, 동아일보 崔英勳스탠더드에디터, 서울신문 孫成珍사회에디터, 조선일보 李先敏오피니언부장, 경향신문 梁權模문화부장, KBS 李康德정치외교부장, YTN 李東憲미디어전략팀장, 한겨레신문 鄭在權논설위원, 문화일보 朴敏전국부장, 한국경제신문 崔勝旭기획심의실 심의위원, 매일경제신문 蔡耕玉뉴스속보부장이 참석했다.

부간사로는 YTN 李秉植국제부차장, 매일경제신문 金仁洙기자, 중앙일보 李佳穎기자, 한국경제신문 林道源기자, KBS 金良淳기자, YTN 최영주 기자 등이 함께했다. (南)



경원대동창회

신임 회장에 李哲雨동문 선임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鎭芳)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롯데백화점 李哲雨(농경제61-65·경대원69-70)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英大 前회장, 모교 경영대학 郭守根 前학장, 崔燦학장, 인간개발연구원 張萬基 회장, 한국궐립 朴武益대표, 윈스틸 宋圭政회장, 다산그룹 鄭日采회장을 비롯해 MBA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 회원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李哲雨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金英大 前회장은 “李회장은 롯데백화점을 아시아 최고의 백화점으로 일군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崔燦학장도 “뛰어난 경영능력과 적극성으로 기업경영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동창회를 맡게돼 기대가 크다”며 “내년이면 경영학과가 개설될지 50주년이 되는데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큰 힘이 돼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李哲雨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다이내믹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선 올해는 체제를 정비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창회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동창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李회장은 만찬 후 가진 동창회 활성화 토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발전안을 내놓았다.

그는 “동창회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무국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업무를 총괄할 상근부회장에 金明寬(경영82-86 태성마케팅 대표)동문, 그 뒤를 받쳐줄 사무국장과 차장에 鄭泰天(경영86-92 외환은행 차장), 김 철(대학원99-03 롯데백화점 유통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동창회는 6월 이사회 개최 후 8월 이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보완을 비롯해 동창회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李회장은 모교 농대, 경영대학원, AMP(49기), AFP(1기)에서 공부하는 등 모교와의 인연이 깊다. 1976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1998년 롯데리아 대표, 2005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표, 2007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에 올랐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소매업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의대동창회

4백여 동문 도봉산 오르며 친목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5월 22일 도봉산에서 제10회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容晔회장, 모교 任廷基학장을 비롯해 이비인후과·내과동문회 회원 2백명 등 총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가율을 기록했다.

최고령 참석자인 劉在勳(의학42-47)동문과 13명의 회원이 참석한 34회 동기회, 최다 커플이 참가한 15회 동기회에 각각 영화 예매권과 등산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행사를 위해 두산그룹과 국순당에서 기념타올과 막걸리 등을 협찬했다.



鄭之碩회장·尹光洙동문

약대동창회

尹光洙동문 바둑 우승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鄭之碩)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송전바둑에서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尹光洙(약학69-73)동문, 2위 孫善一(약학59-64)동문, 3위 鄭大仁(제약70-71)·李炯鐵(제약70-74)동문 ▲B조 : 우승 朴聖鎭(제약69-73)동문, 2위 金貞柱(약학59-63)동문, 3위 吳世榮(약학59-63)·崔秉宇(약학60-64)동문

안동지부동창회

정기모임서 한방 특강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鄭求民)는 지난 5월 23일 안동시내 한정식당 청록에서 상반기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5월 29일 안동대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李熙載(무역69-77)교수를 비롯해 안동지역 동문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부한의원 金奉顯(대학원04-09)원장이 ‘성인병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동문들에게 비만으로 찾아오는 성인병을 한방으로 다스리는 비법을 특강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南)

상대동창회

산행대회에 동문가족 9백명 모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9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成耆鶴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첫 행사에 9백명이 넘는 상대 가족들이 모교에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돼 기쁘다”며 “산행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洪龍濤 前회장님과 각 동기회장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관악산

일부 구간을 등산한 후 버들골에 집결해 동창회에서 나눠준 도시락을 먹으며 화창한 캠퍼스 정취를 만끽했다.

동창회는 22개의 천막을 준비해 각 기수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成耆鶴회장을 비롯해 文哲漢(상학56-60)·曹甲周(경제58-63)·朴容晟(경제59-65)·邊贊義(경영63-71)·吳秀吉(상학63-67)·金東寧(경제64-68)·洪龍濤(경제64-72)·金相熙



(상학66-70)·金承勳(상학68-72)·張永喆(경영76-80)·崔誠元(경영88-92)·申政勳(경영90-

94)동문, 17·24회 동기회 등이 백화점 상품권 등 꾸집한 금품을 협찬했다.

대학원동창회

모교서 정기총회 열어

대학원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5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李文漢회장, 李商淳·朴鍾烈·曹昌燮·朴誠愛·崔



鍾庫·鄭鎭浩부회장, 金敬眞·李宗鎬감사, 申南植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 및 예산을 심의했다.

AMPP동창회

관악산서 첫 등산대회

해양정책최고과정동창회(회장 鄭鍾守)는 지난 5월 21일 관악산에서 鄭鍾守회장, 김순복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첫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관악문화원 시계탑에 집결한 동문들은 관악산 입구에서 둘레2길을 지나는 3시간 왕복코스를 산행한 뒤 관악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순복(11기)사무총장은 “이번 모임을 시발점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는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며 “동창회의 특성을 살려 오는 9월경 바다 낚시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AMPP동창회는 국내 유일의 해양관련 최고위과정 동창회로 12기까지 모두 2백80여 명의 동문들이 각 기별 모임을 비롯해 매년 세미나, 골프대회, 송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건축학과동창회

25회 동문의 날 성황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朴英健)는 지난 5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 운동장 및 교수회관앞 잔디밭에서 3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25회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32회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 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건축학과동창회는 매년 신년교

례회, 홈커밍데이를 비롯해 등산, 골프 모임 등 동호회 활동으로 5천여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또 매학기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건축전 당선자들에게 축하금을 수여하고 있다.

임원으로 朴英健(건축65-69 법건축 회장)회장, 邊榮進(건축66-70 명승건축 회장)·李圭哲(건축67-71 삼우종합건축 단장)감사, 金承會(건축81-85 모교 건축학과 교수)·朴素馨(건축84-88)총무가 봉사하고 있다.

AMP동창회

자랑스런 교수상 시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 수상자로 모교 경영학과 趙東成(경영67-71)교수를 선정해 상금 1천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趙교수는 수상 기념으로 ‘나눔과 창조’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6월 행사 캘린더

6월 19일(일) 오전 9시

• 의대동창회 골프대회

인천그랜드CC

(문의 : 740-8183)

6월 22일(수) 오후 7시30분

• 관연회 여기자모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문의 : 회장 010-5236-8716)

6월 27일(월) 오후 6시

• 전북지부 정기모임

전북 전주시 백리향

(문의 : 총무 010-6618-2115)

OB합창단

27회 정기연주회 개최

모교 OB합창단이 지난 5월 9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2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OB합창단은 지휘자 元鍾洙(성악85-89)동문, 소프라노 조윤조(성악94-98)동문, 메조소프라노 黃惠裁(성악97-01)동문, 테너 박승희(성악94-98)동문, 베이스 정상천(성악96-03)동문과 알테 무지크 서울의 협연으로 화려한 합창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연주회에서 영국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대표적 종교합창곡 ‘Mass in a minor’ 바흐의 모테트 ‘Der Geist hift unser Schwachheit’을 들려주며 웅장한 합창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南)



디자인동문회

미대 원형광장서 바비큐 파티

디자인동문회(회장 孫大洪)는 지난 5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미대 49동 앞 원형광장에서 ‘2011 Hi-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미대 閔哲

泓명예교수·李舜鍾학장, 金 情국회의원 등 54학년부터 06학년까지 선후배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해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AIP동창회

金光山동문 골프 우승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朴泳求)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여주군 렉스필드CC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金光山(31기)동문 73타 ▲롱기스트 姜成功(39기)·황인경(35기)동문 ▲니어리스트 朴哉圭(31기)·金順蘭(43기)동문 동창회는 오는 9월 정기조찬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AMPFRI동창회

26기 골프 단체전 승리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允奉)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88CC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를 전임 회장들이 각각 1백만원과 文允奉회장이 5백만 원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26기 동기회, 2위 11기 동기회 ▲개인전 우승 김범수(11기)동문, 2위 조창열(11기)동문 ▲메달리스트 김종수(14기)동문 ▲여성부 우승 朴恩熙(11기)동문

GLP동창회

郭淳泰동문 골프 1위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골드CC에서 1백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 우승 5기 동기회, 2위 12기 동기회, 3위 13기 동기회 ▲개인 : 우승 郭淳泰(토목공학63-70·13기)동문, 2위 서기섭(5

행사를 위해 孫大洪(응용미술 79-83)회장, 羅成淑(응용미술71-75)·尹春澤(응용미술80-85)·심상묵(산업디자인87-95)·엄세영(산업디자인93-98)동문 등이 경품을 협찬했다.

2천4백여 명의 동문이 소속된 디자인동문회는 2009년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전공동문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매년 1월 신년회, 5월 휴게밍데이를 비롯해 정년퇴임하거나 신간을 발행한 동문 축하연, 모교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원으로 그랜와이즈 孫大洪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尹春澤·李恩實(응용미술82-86)부회장, 심상묵·鄭惠旭(산업디자인87-91)총무, 崔素賢(산업디자인95-00)간사 등이 수고하고 있다.

기)동문 ▲메달리스트 : 장수길(13기)동문 ▲롱기스트 : 김용태(17기)·김명숙(10기)동문 ▲니어리스트 : 유형기(20기)동문 ▲다바디상 : 신태성(4기)동문 ▲최다참석상 : 12기 동기회

SPARC동창회

라운드 돌며 우의 다져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河相哲)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16팀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徐榮出(1기)동문 ▲준우승 李杰九(7기)동문 ▲메달리스트 李在均(17기)동문 ▲롱기스트 金修奉(물리79-83)동문 ▲니어리스트 吳鍾南(행정70-75)·白賢美(10기)동문 ▲최다바디상 洪起南(5기)동문 ▲최다보기상 白仁浩(18기)동문 ▲최다참석상 12기 동기회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HPM동창회 張燦基회장
(사회복지법인 해동재단 회장)



지난 4월 19일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HPM) 동창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해동재단 張燦基(8기)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張회장은 오랫동안 8기 원우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준비된 회장으로 평가받는다. 5월 20일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경서동 실버타운에서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 동창회가 체면된 느낌인데, “지난해 과정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활력을 잃은 게 사실이에요. 올해 27기가 들어왔고, 회원도 1천명 가까이 되니 새로운

이 했던 분이세요. 농어촌봉사의료 봉사활동부터 어린이 건강관리 교육 등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친목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은 참여가 어려울 때 물질로 돕는 일이겠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직종별 모임을 다양화하겠다”

마음으로 시작할 일만 남았죠. 지켜봐 주십시오.” - 활성화 방안이라면, “회원들이 많이, 자주 모일 수 있도록 그룹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회원의 50%가 의사, 약사 분들이고, 30%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 나머지 20%는 일반업계 분들입니다. 직종별 모임을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또 재정 확충을 위해 회장단, 기별 분담금을 차질 없이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창회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운영 계획은, “임기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한보연’ 활동입니다. 신임 조진희(8기)사무총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관련 일을 많

동문 개개인에게도 유익한 모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주 양남 출신인 張회장은 영남대 상학과를 졸업했다. 삼성그룹 공채 13기로 삼성물산에 입사해 대구지점장, 본사 영업부장을 지냈다. 1995년 사회복지법인 해동재단을 설립하고 인천 청라도 경제특구에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1백여 객실 규모의 실버타운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전문병원을 갖췄으며 양·한방 의사들이 24시간 상주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한다. 한양로터리 총무, 양남 재경향우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뒀으며, 사위가 朴完彬(경제98-03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동문이다. (南)

화제의 동문

카카오 李制範(산업공학97-05)대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1천4백만 명(2011년 5월 26일 기준)을 넘어섰다. 이중 80% 이상은 매일 사용하는 적극적 이용자며, 1일 평균 5만5천여 명이 새롭게 가입한다. 현재 2백16개국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톡에서 하루에 주고받는 메시지 수는 2억 건에 달한다.

이 모든 게 카카오톡이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년여 만에 생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대박을 터트린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카카오 李制範(산업공학97-05)대표는 당당히 “페이스북과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신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터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신기한 세상이었다. 여기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를 놓고 벌이는 삼성과 애플 사이의 뜨거운 경쟁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더해져 신제품 출시를 앞당겼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Idea 생기면 2개월내 출시

스마트폰의 성공은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기업에서 너도나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도 그중 하나였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카카오에서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전사적으로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죠.”

전략적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을하기로 하고, 4~5명으로 구성된 3개의 작은 팀을 꾸렸다. 3개의 팀에서 각각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했는데 이중 하나

가 카카오톡이었다. 예전의 프로젝트에서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지체 없이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고민만 하다 실행하지 않는 것은 벤처기업에게 최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시장의 타이밍을 놓쳐버려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이죠. 그때의 경험 이후에 생긴 것이 ‘4명이 두 달 내 개발’이라는 원칙입니다. 첫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부터 그것이 서비스로 개발돼 세상에 나오기까지 두 달을 넘기지 말자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직을 40번도 넘게 개편했다는 그는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카카오톡을 세계적인 수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만들었다. 물론 서비스 이용이 무료라는 점도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 “세계 최고 ‘페이스북’과 어깨 겨뤄”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 그의 눈은 세계 최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현재 6억5천만 명이 가입했다는, 페이스북 너머를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카카오에는 글로벌 담당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는 7월에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에요. 어떤 서비스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 지금은 서로 조금 다른 영역의 서비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서로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로 성공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좋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李동문은 컴퓨터와 경영을 모두 배울 수 있는 모교 산업공학과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李制範동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략과 실행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IT업계를 이끌고 가는 주역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문득 궁금해졌다. 李동문은 무엇보다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PC에서는 내가 정보를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모바일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아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거다.

“기업 연계 서비스 연구 중”

쉽게 말해 지금의 카카오톡은 지인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이지만, 앞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 서비스, 상점 등 모든 것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바뀔다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 브랜드인 BMW를 친구로 등록하면 새로운 신차가 출시되거나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나올 때 실시간으로 나에게 알려주고, 나는 새로 나온 신차의 정보와 리뷰를 보고 시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벌써부터 연구하고 있다고.

그의 대학시절 롤모델이 金範洙의장이었듯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훨씬 많이 열려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기업들처럼 국내 시장에만 안주한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벤처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智)

“國格 높이고 富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만들도록 최선”

동문을 찾아서

金道然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담 : 崔英勳(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노설위원

—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도 과학기술의 힘이고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국가로 도약해 국가의 격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과위가 출범한지 두 달 여가 지났습니다. 조직 구성은 마무리됐는지.

“현재 국과위 인력 총원(1백22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일부 주요 직책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 오는 데 다소 지연되고 있어요. 국장 직위를 민간에 추가 개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다보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전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67%를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이는데.

“예산을 각 부처별로 조율하는 일이 우리의 주요 업무입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 R&D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역할을 국과위가 합니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표가 R&D 예산투자율 겁니다. 2008년 11조원에서 매년 10% 늘어 올해 15조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매년 10%씩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 컨트롤 타워의 성격이 강한데, 플래닝 타워를 강조하셨어요.

“컨트롤의 어감이 뭔가 간섭하고 강압적인 느낌이 강해요. 컨트롤 타워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명령을 내리는 곳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플랜에 따라 A부처는 이것을 하는 게 좋고 B

부처는 저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뜻에서 플래닝 타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존에는 부처 단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해 왔어요. 이를 기술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해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에서 소관 분야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여부,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의 배분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성에 기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상설 위원회로 재탄생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할 국과위는 전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67%(약 9.9조원)를 각 부처에 효율적으로 배분·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과학기술계에선 여긴다.

5월 24일 서울 신문로1가 S타워 19층 집무실에서 金道然(재료공학70-74) 초대 위원장을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큰 키에 어진 표정의 김위원장은 자세를 낮추면서도 당면 현안에는 막힘 없이 구상과 포부를 털어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으셨는데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보면 교육과 과학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과학기술은 상당히 접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쪽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칠 때 근본 가정은 초·중등 교육은 가능한 빨리 지방교육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지 못했죠. 정부에서 못한 점도 있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교육 쪽은 매일 현안이 생겨 좀 더 신경

10조원 규모의 R&D 예산 종합 조정

“컨트롤 타워 아닌 플래닝 타워 역할”

반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다른 부처들도 기꺼이 협력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 정부 출연연구소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과위 출범과 더불어 출연(연) 발전민간위원회에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해당 부처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明博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챙기는 분야 중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매년 예산의 10%를 증액시키는 분야는 과학기술 R&D가 유일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십니까(웃음).

“내가 명예위원장인데, 잘 알겠지만 회사에서 명예회장의 권한이 더 세지 않냐’고 말하고 웃으시면서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을 쓸 수밖에 없는 반면 과학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다 보니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상설 기구로 재탄생한 것이겠지요.”

—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사에서 투자규모나 개념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주로 경제발전과 연계돼 도구란 인식이 강했죠. 과학기술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이고, 중요한 학문 분야가 아닙니까. 기초 쪽에선 특히 그렇죠. 이제 드디어 기초과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물론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치이슈화되고 지역갈등이 빚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과학, 특히 기초과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 과학계 내에서도 집중과 선택이 됐으면 하는 불만이 있지 않아요.

• 김위원장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했다. 1974년 모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79년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과정 중 프랑스 르노자동차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아주대 기계학과 교수를 거쳐 1982년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모교 재임시 연구 연가로 1년간 미국 표준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재료 미세조직 창의연구단장을 맡아 8년간 이끌었으며 2005년 모교 공대 학장에 선출돼 개방과 경쟁을 촉진시켰다.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의 조직 융합을 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장관 퇴임 후에는 울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1년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과학기술부), 젊은공학인상(한국공학한림원), 2004년 모교 공대 교수 연구상, 2005년 Edward C. Henry Best Paper Award 등을 받았다.

저서로 ‘우리시대 기술혁명’, ‘나는 신기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 ‘기후 에너지 그리고 녹색 이야기’,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등이 있다.

평소 운동을 즐기며 대학 시절에는 학교 조정선수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교수 시절에는 테니스 대표선수로도 활동했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과학이란 게 과학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적으로 이해해서 결정하는 것은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시작되는 지금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죠.”

— 올해 들어 東일본 대지진 등 과학과 결부된 재난재해가 많았습니다. 국과위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구성은 마쳤습니다. 6월 중국과위 본회의 때 통과돼 발족할 예정입니다.”

— 운영 계획은.

“구제역, 원자력 사고, 인수 공통전염병 등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에는 사이버테러 문제도 심각하죠. 과학자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개선이 되겠지요. 현재 북한에 우수한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데려와서



“개방과 융합의 시대, 과학기술인들 모두 담을 낮추자”

☑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좋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과 연계해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남북 모두를 위해 좋은 일 같습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은 어떤가요.

“2010년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평가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3위인데 반해, 과학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이고 기술경쟁력은 18위로 괜찮은 편입니다. 총 연구개발투자에 산은 GDP 대비 3.57%로 세계 4위 수준이 고요. SCI 논문 게재율도 세계 11위(2009년 기준), 특허건수는 세계 4위입니다. 다만 특허 부분은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응용·개발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의 과학기술 현실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분야도 적지 않은 반면, 노벨 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노벨상은 그 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을 재는 척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본격적인 투자가 불과 10여 년 밖에 안돼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곧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 프랑스 르노자동차 연구소와 미국 표준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어떤.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산학연이 잘 이뤄지게 하는 것도 국가위의 중요 임무입니다. 우리의 경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따라가야 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따로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두그룹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산학연 협력을 넘어서 일체화돼야 합니다. 교수도 외국처럼 연구소나 기업에 가서 일하고 기업에 있던 사람도 학교에 와야 합니다. 자금처럼 학교, 연구소, 기업이 폐쇄돼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 오픈마인드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이제는 융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융합을 해야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합의 전제 조건은 개방 정신이죠. 과학기술인이 모두 담을 서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도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런 연구를 지원하자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 모교로 화제를 돌려보죠. 공대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야할지 조언해 주시죠.

“공대 학장 시절에도 근본 철학은 개방과 경쟁이었어요. 잘 안 됐지만 학장, 학부장도 밖에서 모셔오자고 했어요. 다이나믹한 체제를 만들고 싶었죠.

세계 명문대학과 경쟁하려면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합니다. 인화, 상부상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학교가 좋은 의미에서 좀 더 많이, 치열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교수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 이공계 기피현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1960~70년대에 너무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수 인재들이 무조건 의대로 몰리는 게 문제죠. 학생들에게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 과학기술 정책 한 두 가지나 금전적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도기를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물론 문제를

하고요. 총장이 뭘 해야 하는지 지침이 되는 책이 있지 않을까 뒤져봤는데, 미국에는 그런 책이 많던데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20개 대학 총장님들께 ‘우리의 노력을 남겨두자. 그러면 후에 오는 사람들이 읽고, 또 다른 대학에서 뭘 하는지 서로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편지를 썼어요. 그 마음을 이해한 총장들이 흔쾌히 원고를 보내주셔서 펴낸 책입니다. 책 제목이 더 근사하죠(웃음).”

－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과학자의 철학이랄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고의 가치는 정직입니다. 엉터리 논문을 쓰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사회가 과학화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과학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죠. 과학에 기초를 둔 합리적 사고를 하면 훨씬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정직하면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예측가능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 연구, 행정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적성에 맞나요.

“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고라 생각하고 임했죠. 그리고 보니까 취임사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뛸니다. 그와 관련된 과학 리포트도 있던데요. 뇌가 거짓말을 믿는답니다. ‘이건 돼’라고 계속해서 암시하면 스스로 자신감을 간계돼 거기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역대 각료 가운데 최장신 아닐까요.

“그렇 겁니다. 키가 190c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남성 몇 천명 중 한 명의 확률이랍니다.”

－ 지금은 키 큰 사람이 꽤 있지만 위원장님 학창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농구를 좋아하셨나요.

“당시 학교에서 제가 제일 컸습니다. 우리 때만해도 운동하면 굶는 줄 알아서 운동을 안 했어요. 반면에 대학교 때는 학업에 쫓기던 시절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웃음)”

－ 동창회에 대한 평소 생각은.

“외국 대학들 보면, 특히 명문대학을 보면 대학발전의 큰 기여를 동문들이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MIT의 경우 입학사정관의 경우도 동문들이 직접 봉사해주더라고요. 서부에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문에게 가서 면접을 보라. 그럼 그 동문이 저녁식사를 시주하면서 학생을 평가해 리포트를 모교에 제출한다고 해요. 그런 식의 기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동문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하지만 아직 사회가..., 그것도 좀더 여유로워지면 모교를 위해 여러 측면의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사신·정리= 金南柱기자)

“산학연 협력을 넘어 일체화돼야” 삶에서 정직과 긍정이 최고의 가치

조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이 있어야죠. 경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체제가 돼야 발전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서울대에서 노벨상 받은 교수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봉급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없으니까요. 평등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은 좀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법인화가 되면 나아지겠죠.

“법인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법인화는 그런 면에서 필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문화가 뒤따라가줘야 합니다.”

－ 모교 공대와 카이스트를 비교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서울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사실 둘 다 모교이고 애정이 깊죠. 카이스트와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도 발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노력할 일인데, 저는 우선 언론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공계 기피라는 말은 쓰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기피하는데 자녀를 보내려 하겠습니까. 이공계 우수 인재 부족이라고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조정되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 분배의 왜곡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와야 하겠죠.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가면 우리나라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일단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괜찮는데, 진입 과정에서 인재가 빠져나가면 문제가 심각하죠.”

－ 울산대 총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죠.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20개 대학 총장들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대학들이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전수되질 않아요. 한 일 또 하게 되고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다시 짜내려고 고생

발전위원회 새 출범

2014년까지 5천억원 모금 목표

모교 소식

모교 발전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보직교수, 발전위원, 협력위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하는 미래 - SNU Chanllenge’를 주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이 발전위원회 명예위원장에 위촉됐으며, CJ그룹 孫京植(법학57-61)회장·삼성전자 尹鍾龍(전자공학62-66)상임고문·웅진그룹 尹錫金

(AMP 27기)회장에게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吳然天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孫京植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모임이 국립대학법인으로 거듭나는 서울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 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힘을 다해 모교를 지원하자”고 말했다.

宋芝憲(잡사68-74)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 행사에서 모교 南益鉉기획처장이 법인화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이 모교 비전 및 모금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南益鉉기획처장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재정과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 학문적 가치창조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위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부 만찬에서 林光洙회장은 “周

易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두가 합심해 뜻을 함께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모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만찬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인 모교 기악과 白珠暎교수가 ‘카르멘 환상곡’을 선보였으며, 성악과

延允哲교수가 ‘미켈란젤로 가곡’을 열창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모교는 2014년 7월까지 5천억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을 모토로 다양한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대 姜泰晉학장, 朴明珍교육부총장, 韓武榮교수, 吳然天총장, 安圭里교수, 李昇鍾연구부총장, 의대 任廷基학장



李昇鍾연구부총장, 吳然天총장, 崔昌瑛동문, 공대 姜泰晉학장, 공대동창회 尹友錫회장

인문학연구원·미술관

만화 주제의 문명포럼

모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국(HK)사업단(단장 宋龍準)과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5월 27일 관악캠퍼스 미술관 2층 강당에서 제7회 ‘漫畫萬話’ 문명포럼을 개최했다.

‘이도영의 대한민보 만평에서 윤태호의 웹툰 이끼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만화가 문자매체에서 영상매체로의 전환과 디지털 매체로의 이행을 거치면서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자기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容進(서양사학82-86)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만화가는 누구인가’ 2부 ‘웹툰의 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공과대학

崔昌瑛동문 ‘발전공로상’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5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21회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코리아니켈 崔昌瑛(금속공학64-69)회장을 선정,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李昇鍾연구부총장, 공대 姜泰晉학장, 공대동창회 尹友錫회장 등이 참석했다.

崔회장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31억원을 쾌척했으며, 엔지니어이자 경영자로서 금속공학 및 비철금속 제련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상용화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공대 韓武榮교수·의대 安圭里교수 모교 제1회 ‘사회봉사상’ 수상

모교는 제1회 ‘사회봉사상’ 첫 수상자로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韓武榮(토목공학73-77)교수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安圭里(의학74-80)교수를 선정했다.

지난 5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열린 학장회의에서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교수에게 각각 상금 2천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 상은 지난 4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모교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대인의 사회적 책무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됐다.

韓교수는 빗물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 5년간 물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 국내 섬 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을 재학생들과 함께 설치했다.

관악캠퍼스 기숙사, 공과대학 39동, 버들골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安교수는 1997년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인 ‘라파엘클리닉’ 창립을 주도했으며 2007년 해외봉사단체 ‘라파엘클리닉 인터내

셔널’을 창립해 몽골, 네팔 등 의료 빈민국의 의료수준 향상과 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총장배 구기대회·마라톤 개최

모교 구성원 ‘친목의 장’ 마련

지난 5월 2~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1천여 명의 서울대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배 구기대회가 진행됐다. <사진>

축구·농구·야구·테니스·탁구·배드민턴 종목으로 나뉜 진행된 구기대회는 많은 외국인학생을 비롯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 멋진 경기를 펼쳤다.

이번 구기대회 탁구 남자단식A2 부문에 처음으로 참가한 임 혁(지구과학교육09입)군은 “운동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체력도 길러져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 값진 대회”라고 말했다.

한편 5월 4일 관악캠퍼스에서 제4회 종합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2백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백94명이 완주하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자연대와 농생대-신공학과관 정삼-기숙사 삼거리-후문-인현초등학교를 반환점으로 총 10km 코스를 완주했다.



봄 축제 ‘전쟁시리즈 4탄’ 학생 애환... 놀이로 승화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축제하는 사람들’(회장 박연지 법학08입)은 지난 5월 24~26일 관악캠퍼스 본부 앞 잔디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쟁시리즈 4탄’을 주제로 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바쁘고 고된 재학생들의 일상을 풍자한 ▲아침전쟁(가장 빠른 시간에 텐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음식 먹고 등교하기) ▲출석전쟁(5513번 등교 버스에 가장 많은 인원 탑승하기) ▲학점전쟁(웃놀이로 학사일정 조정하기) ▲체력전쟁(체력강) 등의 게임으로 구성했다.

24일 기부캠페인에 이어 25일 ‘국제음식축제’, ‘5초 초상화’, 캠프 이벤트 등을 진행했으며, 26일 모교 동아리와 일반 가수들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榮)

발전기금 ‘SNU 희망장학금’

3백명 동참... 12억9천만원 모아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5월 24일까지 ‘SNU 희망장학금’ 캠페인에 3백여 명이 참여해 12억 9천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모교 吳然天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SNU 희망장학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이 저하되는 약순환을 끊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 개념 장학금 제도이다.

발전기금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延甲洙(국사80-87)HK연구교수의 두 딸을 첫 수혜자로 선정해 제1차 희망장학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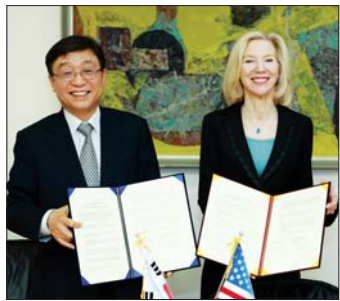
국어교육과 具本寬교수, 서양학과 金貞姬교수, 故 延甲洙교수의 두 딸, 吳然天총장

여식을 전달했으며, 오는 2학기부터 더 많은 재학생에게 희망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교내 구성원과 동문들을 위해 희망장학금 캠페인을 적극 알리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문의 : 02-880-8004 / ARS 후원(한 통화에 5천원 적립) : 060-700-8004)

펜실베이니아대와 교류협정

공동 연구·학술활동 폭넓게 전개



모교는 지난 5월 23일 관악캠퍼스 행정실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학술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두 대학은 기존 교류보다 더 발전된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에이미 거트만 총장(사진 右)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와 파트너가 돼 기존에 축적해 온 두 대학의 분야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柱津(법학54입·펜실베이니아대 한국동문회장)회장이 펜실베이니아대 한국학 연구 강화를 위해 6백만달러(약 66억원)를 기부했다. 이에 펜실베이니아대는 기존 한국학 과정을 ‘한국학 제임스 김주진 과정 (James Joo-Jin Kim Program in Korean Studies)’으로 새롭게 명명했다.

미술대학 학장에 李舜鍾교수 선임

지난 5월 7일 모교 미술대학 학장에 디자인학부 李舜鍾(응용미술 70-74)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19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2004년 핀란드 헬싱키예술디자인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초여름 밤 음악회 열어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6월 2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그동안 따뜻한 관심을 보내온 기부자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金泳律(기악76-80)교수가 지휘하는 모교 윈드앙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인 모교 기악과 白珠暎교수를 비롯해 모교 비바 남성중창단·교수합창단·金蘭都(사법82-86)교수, 가수 바비킴 씨가 출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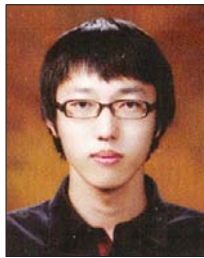


감독,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모교 출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디자인학회 이사, 모교 BK21 미래문화디자인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李학장은 한국산업디자인협회 부회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

재학생의 소리

“예전 명성 되찾고자 열심히 연습 중”



申 鏞 煥
(지구환경과학09입)
탁구부 주장

안녕하세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대 탁구부 주장 申鏞煥입니다.

제가 신입생이던 2009년에 탁구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1969년부터 시작된 서울대 탁구부에 들어와 현재 2011년 주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대를 대표하는 탁구부를 이끌어 가게 돼 기쁘고 선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년 동안 탁구부 활동에 매진한 뒤, 졸업 후에는 대기과학을 전공해 기후와 기상관측 등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탁구부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총장배 구기대회를 비롯해 8개 대학 탁구대회, 전국대학동호인연맹 탁구대회 등 서울대를 대표해 출전했습니다. 이번 총장배 탁구대회에서는 교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재학생들과 교직원 분들이 어우러져 실력을 뽐냈습니다. 올해엔 특히 참가자 수가 더 많아서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틀동안 열심히 도와준 신입부원들 덕분에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내 탁구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외대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8개 대학이 모여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8개 대학 탁구대회에선 서울대가 아쉽게 3위를 차지했지만 2011학번 신입생들끼리 겨루는 신입생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5월 말에 홍천에서 열린 제28회 전국대학동호

인연맹 탁구대회에선 서울대가 전국 3위로 입상했으며 남녀 신입생전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하며 탁구부의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올해엔 열정적인 신입부원들도 많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며 전국최강이라는 예전 탁구부의 명성을 되찾고자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운동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탁구부도 운동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체육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탁구를 하기 적합한 마루바닥이 아닌 시멘트 바닥의 복도 한 쪽에 탁구대를 비치해둬 움직임이 크고 빠른 탁구를 하기엔 부상의 위험이 있는 환경입니다. 탁구대 또한 오래돼 사용하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가 탁구부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외계인 치아 교정하기

金 載 城(영어교육82입)
샌프란시스코치과의원 원장·소설가



한 송이 프라우 마리아(Frau Maria)처럼 은하가 뛰어내린 절벽에 유람선 모양 건축물이 들어선 건 작년 봄이다. 건물 좌우로 고물과 이물이 달리고 둥근 테두리 선박용 창문으로 마감된 그 건물은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에 좌초된 백색 유람선처럼 보였다. 어촌 끝까지 진출한 거대 자본주의의 위상이 옥상 위의 삼각돛이 되어 소라읍을 내려보며 필력였다. 소라읍은 유람선이 마주보이는 반원 모양의 구릉 아래 자리잡은 삼백여 가구쯤 되는 어촌이다.

나는 그 유람선 꼭대기 층에 치과를 차렸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지만 바다를 내려다보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바다 치과는 진료실과 화장실, 수술

냄은 지금까지도 생일 케이크에 열여덟 개의 초만 꽂아둔다. 형제가 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조금도 주저 없이 둘이라고 대답한다. 밤이 되면 은하는 항상 장미성운에서 나를 내려다본다. 나도 은하를 쳐다본다.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마음에 드는 별자리를 한 번 훑어보고 나면 돛을 나와 옆에 만든 착륙장을 둘러본다. 착륙장은 UFO를 위한 것이다. 떠난 사람들이 나를 다시 찾아왔을 때 실망해서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는가?

치과 생활은 대체로 만족이다. 아는 사람

다음날 간호사를 뺐은, 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바른 사내가 나타났다. 넥타이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두 명의 직원들과 스태워즈에 나오는 원통형 로봇, 알투디투처럼 생긴 기계를 밀고 왔다. 그제 빛방울 레이저였다. 마케팅을 위해 30개월 무이자 할부로 레이저 기계를 들여놓았지만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날마다 줄어만 갔다. 마침내 유일한 간호사를 해고하고 옥조에 누워 혼자 로제를 마셨다. 핑크빛 포도주 한 병을 비운 다음 레이저 기계를 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조준점을 밤하늘로 향한 다음 광선을 발사하는 페달을 힘껏 밟았다. 가느다란 레이저 광선이 밤하늘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외계인 환영, 외계인 교정합니다. UFO 착륙장 완비’

레이저 신호를 포착할 능력이 있는 외계인이 그런 문구를 읽었을 것이다. 잠시 후 장미성운에서 깜박이던 빛이 밤하늘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영어 알파벳이었다.

‘장미성운에서 치아를 교정해줄 의사를 찾고 있음. 오늘밤 11시 예약 바람’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밤하늘을 응시하자 혜성처럼 꼬리를 끄는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 별은 기다란 원통에 창문이 촘촘히 박힌 시가형 UFO였다. 비행물체는 이내 옥상 위의 착륙장에 내려 앉았다.

“안녕하세요? 바다치과 원장님. 반중력 장치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진료를 맡아주신 걸 감사하는 뜻에서.”

UFO 계단을 내려오던 작은 체구의 금발여인이 던진 인사말이었다. 그녀는 작은 리모컨 하나를 내밀었다. 두 개의 버튼이 달린 사각형 리모컨이었다.

치과에 들어서자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그녀와 내 몸이 바닥에서 떠올랐다. 나는 신이 나서 병원의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유명했다. 물고기가 어항 벽에 부딪히며 헤엄치는 것과 비슷했다. 그녀는 나를 공중에서 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처럼 병원 안을 날아다니며 술래잡기를 했다. 유영을 마친 것은 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나서였다. 치과 등을 커서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지구인과 흡사한 외모의 그녀였지만 치아 구조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16개 밖에 없었다. 2대의 앞니는 지구인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어금니는 양쪽에 하나씩 박혀 있었다. 나머지 이는 들쭉날쭉 제멋대로였다. 그래서 교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어려운 치료가 아니었다. 어금니를 앵크로 삼아 작은 앞니들을 하나씩 옆으로 이동하면 될 듯싶었다. 얼굴의 프로파일이나 골격도 정상이었다. 지구인이었더라도 패재를 불렀을 거저먹기 환자였다.

“어렵지 않아요. 육 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요.”

그녀를 위해 속성으로 치아 교정을 끝내는 친절을 베풀었다.

“안 돼요! 한 달 안으로 마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어요.”

“우주온난화라고요? 지구온난화는 들어

봤지만 우주온난화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지구에서 온도가 0.5도 상승하면 장미성운에서는 거대한 기후변화의 재앙이 온답니다. 지구인들의 물지각한 탄소배출을 막지 않으면 우주전체가 온난화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바퍼역할(완충역할)을 하는 아마존 성운을 찾아내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 치아를 똑바로 배열하면 아마존 성운이 속한 위치가 제 치열 모양에 나타난답니다.”

나는 우주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치아에 교정 장치를 부착시켰다. 그녀는 재갈물린 암말이 되어 큰 눈만 깜빡였다. 활처럼 생긴 굽고 둥근 철사를 어금니에 끼워 물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양쪽 고리에 탄력 밴드를 걸어 목 뒤에서 당겨지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녀와 나는 치과 천장에서 나란히 잠이 들었다. 반중력 장치로 모처럼 편안하게 천장에 기대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 가운을 입은 외계인 아가씨가 나타났다. 공중을 떠다니며 물걸레로 천장과 벽을 닦는 그녀는 할로윈의 귀여운 마녀 같았다. 치과에 들어선 애들 서너 명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나는 의자 위를 날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기로 했다. 아가씨는 마포 길레 위에 앉아 날아다니며 접수를 하고 환자들을 보살폈다. 두 시간쯤 지나자 소라읍 사람들이 대기실로 몰려들었다. 외계인 처녀는 마법 빗자루를 타고 다니며 열 명쯤 되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들을 혼자서 해치웠다. 아이들에게 무설탕 사탕을 물려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재스민차를 대접하기도 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십 명이나 되는 환자 접수를 끝내는가 하면 소독된 기구를 진료 의자에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한 달이 정신 없이 지나갔다. 교정을 시작한지 한 달째 되던 날 아침, 창 밖으로 기자와 카메라가 몰려들고 있었다. 취재용 사다리차와 헬기들이 치과 건물을 에워쌌다.

“선생님, 제가 방송에 나가면 우주온난화의 위기가 알려질 거예요. 필요 없는 불안과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여길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외계인 아가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그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대낮인데도 은하수가 떠있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은하수까지 날아오르더니 희미한 별빛으로 변해 사라져버렸다. 혼자 남겨진 내 손에 무언가 들려있었다. 들여다보니 그건 일기장이었다. 은하가 바다로 뛰어내리던 날 사라졌던 거였다. 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촛불을 끄면서 입술이 맞닿았어. 오빠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입맞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하게 했어.’

외계인 처녀가 은하수 속으로 사라진 뒤 한 달이 지났다. 지구는 변함 없는 공전을 하고 있다. 교정은 성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은하계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녀가 다녀간 이후 치과는 환자들로 넘쳐난다. 어린이들이 치과에 올 때마다 내게 묻곤 한다. 마법 빗자루를 탄 외계인 간호사가 UFO를 타고 다시 돌아올 거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이를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별이 된 은하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

지구인들의 물지각한

탄소배출을 막지 않으면

우주전체가 온난화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바퍼역할(완충역할)을 하는

아마존 성운을 찾아내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

실과 침실이 갖춰진 치과 겸 내 주거공간이었다. 이제 개업한지 일 년이 꽤간다.

진료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면 목욕가운을 두른 채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문해서 만든 천체 망원경 유리 돛이 놓여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망원경으로 사천육백 광년 떨어진 장미성운을 들여다 볼 때마다 가운데에 뿔린 성운 구멍으로 은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은하는 나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다. 성별은 다르지만 우리는 놀랄 만큼 닮았다. 열 살이 되자 부모님은 은하를 먼 친척집으로 보냈다. 쌍둥이 남매는 함께 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를 원망했다. 은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부모 몰래 생일날이면 같이 만나 케이크를 잘랐다. 열여덟 살이 되어 함께 촛불을 끄던 날, 은하는 정말 아름다웠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다 시선이 부딪혔다. 맑고 깨끗한 은하 눈이 촉촉이 젖어갔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껴안고 키스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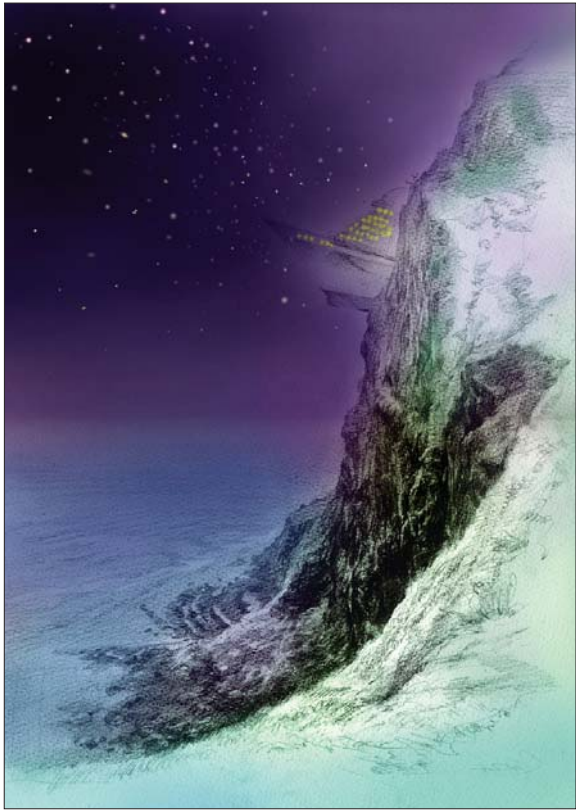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 은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이후 서른이

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다. 진료를 시작하면 정신 없이 일하고, 하루의 스케줄이 끝나면 옥조에 누워 바다와 별을 바라보며 몽롱한 꿈에 젖는 건 은하가 내 곁을 떠난 후 가진 유일한 행복이다. 그 행복한 꿈을 이룬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치과 운영상태가 좋지 못하다. 마을 사람들이 치과에 쳐박혀 나타나지 않는 내게 이질감을 느꼈는지도 몰랐다. 밤이면 외계인과 대화하고 옥상 UFO 착륙장에서 외계인을 기다린다는 소문도 돌았다. 기본적인 영도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줄어든다. 의기소침해 원장실에 앉아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났다. 간호사였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른 치과에서는 모두 레이저로 환자를 끌어들이요.”

자기 사촌 오빠가 레이저 세일즈를 한다고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 - 07)

동 정

수 상

▲池憲澤(치의학43-47 대한치과 의사협회 고문) = 지난 5월 5일 아시아태평양치과 의사연맹 산하 국제치의학평생 교육원으로부터 공로대상 수상.

▲李御寧(국문52-56 중앙일보 상임고문·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 지난 5월 31일 이화여대 창립 125주년 기념식에서 제1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

▲司空晄(상학58-64 한국무역협회 회장) = 지난 5월 25일 경북중·고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자랑스러운 慶脈人賞 수상.

▲張世一(전기공학59-63 일성 회장·관악회 이사) = 지난 5월 16일 제46회 5·16민족상(산업 부문) 수상.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시인) = 지난 5월 25일 시사광문화인협회가 주관한 제22회 김달진문학상(시부문) 수상자에 선정.

▲金磐石(화학공학69-76 LG화학 부회장) = 지난 5월 9일 한국능

률협회로부터 2011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李基秀(대학원70-72 前한국대학교 교육협 의회장·前고려대 총장) = 지난 5월 3일 국민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宋喆儀(국문72-76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지난 5월 13일 진단학회로부터 제30회 斗溪학술상 수상.

▲愼昌幸(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 = 지난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대한민국e 금융상 시스템 부문 금상 수상.

▲孔仁泳(조선공학77-8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장) =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에너지분야) 수상.

▲沈雪花(의류81졸 베라카 대표) = 지난 4월 25일 중국 다롄의 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회 패션아시아어워드에서 프레타 포르테(기성복) 패션디자이너부문 대상 수상.

▲徐洪官(의학77-83 국립암센터 교수) = 지난 5월 15일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사문학상(시 부문) 수상.

▲朴畿桓(식품공학80-84 중앙대

교수) = 지난 5월 13일 제10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근정포장 수상.

▲張夏準(경제82-86 英케임브리지대 교수) = 오는 7월 8일 서울 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제5회 포니정(PONY鄭) 혁신상 수상.

▲墨仁姬(동물82-86 모교 생화학 교실 교수) = 지난 5월 17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7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羅卿媛(사법82-86 국회의원) = 지난 5월 18일 아시아소사이터티 코리아센터로부터 여성 리더상 수상.

▲尹永鎬(의학84-90 국립암센터 암관리연구과장) = 지난 5월 20일 한국임상암학회 보령 학술상(최우수상) 수상.

▲金素英(경제86-90 모교 경제학부 교수) = 지난 6월 2일 니어재단으로부터 제4회 니어학술상(경제경영부문) 수상.

▲하택집(물리86-90 美일리노이대 교수) = 지난 6월 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제21회 호암상(과학상) 수상.

▲鄭武燮(경영91-96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지난 6월 2일 니어재단으로부터 제4회 니어학술상(경제경영부문) 수상.

▲鄭志伊(고고미술96-00 현대유엔아이 전무) = 지난 5월 18일 아시아소사이터티 코리아센터로부터 젊은 여성 리더상 수상.

▲金在哲(AMP 4기 동원그룹 회장) = 지난 4월 20일 한국외국어대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

▲咸泰浩(AMP 11기 오푸기 명예 회장) = 지난 5월 13일 제10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鄭崇烈(AMP 20기 한국화장실 협회장) = 지난 5월 16일 제46회 5·16민족상(사회교육부문) 수상.

▲朴世煥(AMP 39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 지난 5월 16일 제46회 5·16민족상(안전보장 부문) 수상.

▲李康泰(AMP 54기 하나SK카드 사장) = 지난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대한민국e 금융상 서비스부문 금상 수상.

▲李采郁(AMP 54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지난 5월 19일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盧貞男(AMP 57기 대신증권 사장) = 지난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대한민국e 금융상 시스템부문 최우수상 수상.

▲李霜雨(AMP 69기 누리플랜 대표) = 지난 5월 19일 제46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柳相浩(GLP 11기 한국투자증권 사장) = 지난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대한민국e 금융상 시스템 부문 금상 수상.

인 사

▲鄭東洙(상학63-70 前환경부 차관·상명대 석좌교수) = 지난 4월 20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에 취임.

▲金光植(지리67-71 성균관대 교수) = 지난 5월 14일 도시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

▲南宮鍊(공업교육74졸 한국화낙 이사) = 지난 5월 16일 한국화낙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임.

▲李揆亨(외교70-74 前외교통상부 제2차관·前駐러시아 대사) = 지난 5월 7일 駐중국 대사에 임명.

▲朴 滿(행정70-74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 지난 5월 9일 임기 3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 위원장에 선출.

▲梁熙山(교육70-74 전주대 금융보험학전공 교수)=지난 5월 13일 한국보험학회 제23대 회장에 취임.



▲黃健豪(경영70-74 한국금융투자협회장)=지난 5월 23일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회장에 선출.



▲金用民(전자공학71-75 美위싱턴대 교수)=지난 4월 21일 포스텍 제6대 총장(임기 2011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에 선임.



▲諸海成(건축71-75 아주대 교수)=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朴鍾雄(행정71-75 前국회의원)=지난 5월 25일 대한석유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임.



▲權度燁(토목공학72-76 前한국도로공사 사장·前국토해양부 제1차관)=지난 6월 1일 국토해양부 장관에 취임.



▲金敏洙(건축72-76 경성대 교수)=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白明鎭(응용미술72-79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朴洪佑(법학72-7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관사)=지난 5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임명.



▲黃贊鉉(법학72-76 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지난 5월 18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

▲朴宰完(경제73-77 前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고용노동부 장관)=지난 6월 2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



▲申喆是(경제73-77 STX그룹 부회장)=지난 5월 23일 개원한 STX 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임.



▲黃愼俊(경제73-77 상지대 교수·한동경상학회 회장)=지난 5월 20일 임기 2년의 한국질서경제학회장에 선임.



▲趙錫俊(기상73-77 기상청장)=지난 5월 26일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에 선출.



▲申珪秀(법학73-77 前駐이스라엘 대사·前외교통상부 제1차관)=지난 5월 23일 駐일본 대사에 임명.



▲申鳳吉(외교74-78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지난 5월 23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에 임명.

▲李明植(섬유공학78졸 상명대 교수·한국마케팅학회 이사)=최근 한국신용카드학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재선임.



▲鄭革(원예74-7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5월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에 선임.



▲梁裕錫(법학74-78 前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지난 4월 22일 임기 3년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에 임명.



▲尹相直(무역75-81 前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지난 5월 23일 지식경제부 제1차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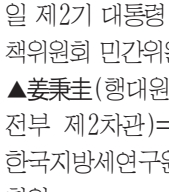
▲李貞冕(건축75-79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대표)=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朴炳大(법학76-80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지난 6월 1일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



▲金賢善(가정관리80졸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姜秉圭(행정77-79 前행정안전부 제2차관)=지난 4월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

▲金石基(정치78-85 前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지난 5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에 선임.



▲金正寬(경영78-82 前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자원실장)=지난 5월 23일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



▲黃大俊(대학원81졸 성균관대 교수)=지난 4월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0대 사무총장에 선임.



▲權俊壽(의학78-84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5월 26일 아시아인 최초로 임기 3년의 국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에 선임.



▲徐相赫(대학원79-82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최근 한국기술혁신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



▲李丞國(토목공학79-83 前BNP 파리비증권 대표·현대증권 부사장)=지난 5월 27일 현대증권 사장에 선임.



▲權慶相(현대원84졸 前한국체육진흥 대표)=지난 5월 20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제2대 사무총장에 취임.



▲金聖夏(경제81-8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지난 5월 23

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에 임명.

▲李錫勳(지질과학81-8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획부장)=지난 5월 2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자현미경연구부장



에 선임.
▲申然琇(심리83-89 동아일보 산업부장·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 회장)=지난 5월 17일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부국장급)에 선임.

▲李塚弼(행정83-87 前노동부 노사정책실장·고용노동부 차관)=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



▲池澈湖(행정84-86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장)=지난 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에 임명.



▲朴贊佑(행정84-87 前행정안전부 조직실장·기획조정실장)=지난 5월 23일 소청심사위원장에 임명.



▲皇甫官(체육교육84-88 前프로축구 FC서울 감독)=지난 5월 24일 대한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에 선임.



▲辛忠植(ABP 10기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지난 5월 12일 임기 2년의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에 선임.



▲安鎬元(HPM 6기 부천대 객원 교수·법무부 범죄예방위원)=지난 5월 25일 인터넷신문 미디어팜스투데이 편집 이사에 선임.

▲韓晚晝(ACPMP 1기 前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지난 5월 23일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 임명.

▶ 행사

▲南應祐(대학원56졸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지난 5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米壽 기념 서예전시회와 축하연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1세기 새세대 뉴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Y-SMU포럼 창립대회 개최. 또 21일 몽골 셀렝게 풍하리주민회관에서 열린 제5회 몽골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특별강연.

▲李炳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블루베리협회장)=지난 4월 29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제6차 한국블루베리협회 정기총회 및 유기농 블루베리 재배에 관한 세미나 개최.

▲李正朱(회화58-64 前강원대 교수·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고문)=지난 5월 9~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11 한국구상 大祭展' 개최.

▲李正子(독문59-63 여성정치포럼 대표)=최근 경남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방의원은 아무나 하나 -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기포럼 개최.

▲趙豐相(성악59-65 前세종대 교수·테너)=지난 4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독창회 개최.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5월 13일 제주 KAL 호텔에서 '제주지역 조정 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또 5월 21~22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원봉사단과 함께 연평도를 방문해 봉사활동.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4월 29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스페인 발바오쿠크르 입상자 및 세계 최정상 음악가 초청공연 개최.

▲全玲惠(기악63-67 경희대 명예교수·피아니스트)=지난 5월 1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독일 슈트트가르트현악 4중주단과 피아노 5중주 협연.

▲張文英(철학64-68 前통일민주당 부대변인·시인)=지난 5월 18일 시집 '나비 날개에도 바람이 있다'(고려) 출간.

▲金完柱(정치66-70 전라북도지사)=지난 6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을 주제로 포럼 개최.

▲成耆鶴(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상대동창회장)=지난 5월 18일 한림대 개교 기념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받음.

▲金兌完(교육67-71 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5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일본학교 건축의 최근 동향 및 국내 과제'를 주제로 교육시설 포럼 개최.

▲趙東成(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속경영학회 회장)=지난 5월 20일 핀란드 알토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 받음.

▲殷熙哲(의학68-74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세계피부과학대회 회장)=지난 5월 24~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피부과학대회 개최.
▲宋大晟(외교69-73 세종연구소장·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지난 5월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 주제의 학술회의 개최.
▲崔相鎔(영문69-73 前국민일보 편집국장)=지난 5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이 꿈꾸는 세상' 출판기념회 개최.

▲朴珍雨(산업공학70-74 모교 산업공학과 교수·한국경영과학회장)=지난 5월 26~27일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산업공학회(회장 趙星九 산업공학72-76)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하노이 교민 월간지 '윈도우 온 베트남' 상임 고문·본보 논설위원)=최근 뉴스통신사 뉴시스의 '기자 49년차 안병찬의 영상 르포르타주'에 첫 영상 칼럼 '24K 집착한 고집불통 황금 호텔 세운 회장님' 집필.

▲盧大來(법학74-78 방위사업청장)=지난 5월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개최한 방산정책 조찬포럼에서 '방위산업 시장화 및 고품질화'를 주제로 강연.

▲梁承穆(신문74-79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지난 5월 26~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司空珍(무역75-79 한양대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지난 5월 27일 한양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朴京沃(기악77-81 한양대 교수·첼리스트)=지난 6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파르티트 21'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金命振(조경78-84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지난 5월 20일 모교 교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安宰賢(산업공학80-84 KAIST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지난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 지형변화와 사업자 전략: 소셜&스마트'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尹旺老(기악82-86 백석대 교수)=지난 6월 4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화성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및 트럼펫 협연.

▲李政靜(기악83-87 건국대 교수·피아니스트)=오는 6월 23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노윤진(기악03-07 첼리스트)·전재성(기악03-08 바이올리니스트)동문 등과 함께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李城圭(행정대원86-8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지난 5월 26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고문 및 위원 위촉식 개최.

▲禹相浩(서양화89-93 목원대 교수)=오는 6월 15~21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時間의 研磨'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徐 旻(컴퓨터공학91-95 넥슨 대표)=지난 5월 30일~6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슨 게

임개발자 콘퍼런스 2011' 개최.
▲이태정(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6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채경애(기악95-99 바이올리니스트)·임남희(기악95-99 피아니스트)·이현정(기악96-00 첼리스트)동문 등과 함께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金殷蘭(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6월 12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한지은(기악94-98 피아니스트)=오는 6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트리오 나무' 정기연주회 개최.

▲趙美衡(기악96-00 비올리스트)=지난 5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트라우스, 헨델 등의 작품으로 콰르타브라체 정기연주회 개최.

▲조정민(기악99-03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지난 6월 12일 서울올림픽스홀에서 포퍼,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개최.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 ▲安鴻國(정치45-49 충북대 명예교수)=5월 16일 별세(89세)
- ▲郭顯祿(독문46-48 서강대 명예교수)=5월 28일 별세(89세)
- ▲金玩熙(전기공학50졸 국제기술평가 회장)=5월 25일 별세(85세)
- ▲李相燮(화학52졸 前특허청장)=5월 1일 별세(84세)
- ▲姜熙英(독문48-53 前이화여대 교수)=5월 22일 별세(87세)
- ▲李秀佑(정치48-52 前駐아르헨티나 대사)=5월 18일 별세(83세)
- ▲李成宰(법학48입 영신금융협회 회장)=5월 17일 별세(84세)
- ▲李英世(경제48-55 前풍산 대표)=5월 25일 별세(83세)
- ▲閔萬植(법학50입 한국외대 명예교수)=5월 15일 별세(81세)
- ▲黃應淵(교육50-54 이화여대 명예교수)=5월 13일 별세(81세)
- ▲朴玉潤(수의학52-56 前진주산업대 교수)=5월 10일 별세(82세)
- ▲鄭佑九(의학53-59 前을지병원 부원장)=5월 25일 별세(76세)
- ▲權五浚(상학58-63 前대우정밀 사장)=5월 16일 별세(72세)
- ▲李錫鳳(행정대원64졸 前충청은행 전무)=5월 9일 별세(87세)
- ▲金學元(법학66-70 前국회의원)=5월 22일 별세(64세)
- ▲崔震龍(대학원70졸 경상대 명예교수)=5월 29일 별세(66세)
- ▲龐漢鼎(금속공학70-74 한국BMC 대표)=5월 27일 별세(60세)
- ▲金漢鍾(행정대원74졸 前건설부 차관)=5월 13일 별세(75세)
- ▲權泰仁(언어74-78 前TBC 보도국장)=5월 2일 별세(56세)
- ▲姜仁求(국어교육80졸 前돈촌중 교사)=5월 28일 별세(55세)
- ▲金在穆(정치81-85 前문화일보 논설위원)=5월 16일 별세(50세)
- ▲玄暢合(외교82-86 머니투데이 부국장)=5월 17일 별세(48세)
- ▲車圭憲(ACAD 4기 前건설교통부 장관)=5월 10일 별세(8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 한일 고대 관계사의 쟁점

— 姜吉云 지음



육군사관학교, 덕성여대, 충남대, 수원대 교수를 지낸 姜吉云(국문 48-54) 동문이 소위 고유어라고 일컬어지는 어휘 하나하나의 어원을 밝혀 현행 국어사전의 주해와 맞춤법상의 슬한 오류를 바로잡아 완전한 우리말 사전을 출간했다.

또 독도는 예로부터 당연히 우리 땅이었고, 대마도도 임란 이전까지는 우리 땅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펴냈다.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에서는 우리가 토박이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의 3분의 2 이상이 외래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였음을 강조한다. 또 문헌사료로 밝힐 수 없었던 아득한 고대의 우리 민족의 형성사를 고쳐 쓰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일 고대 관계사의 쟁점’에서는 ‘倭’는 가야족을 가리키며, 백제 의자왕의 아들 용왕자가 신하들을 데리고 오오즈(大津)에서 즉위해 ‘日本國’이란 국호를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한국문화사刊·각 값60,000원/값18,000원〉

■ 役使와 使役に 관한

나의 단상

— 金順信 지음



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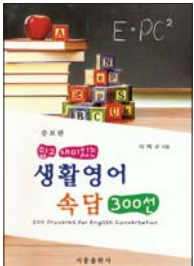
金동문은 국제기드온협회의 문서들을 번역하는 가운데 ‘ministry’란 낱말을 번역할 때 고심이 많았다고 한다. 원래 이 단어는 ‘役使’로 번역되지만 한글세대가 한글로 ‘역사’라고 할 때 ‘history’로 이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거꾸로 ‘使役’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서울 후암백학교교 원로장자인 金동문은 이 책에 50여 편의 한글 수필과 7편의 영문수필을 담았다. 〈도서출판 셋별刊·값12,000원〉

■ 쉽고 재미있는

생활영어 속담 300선

— 李澤求 지음



동문이 수년간 외국인들과 일하는 동안 그들이 생활신조로 삼는 명언과 유머스럽거나 지혜로운 표현 3백가지의 해설을 달아 출간했다.

명언 하나하나의 뜻을 설명하고 사전을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해 단어의 뜻도 함께 기재했다. 문장이 간결하고 문법이 정확해 영어공부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서흥출판사刊·값10,000원〉

■ 삶의 정도

— 尹錫喆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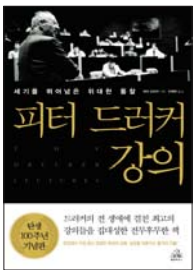
모교 경영학과 尹錫喆(물리 58-63) 명예교수가 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영학 등 평생 동안 연구한 이론과 업적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가지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체적으로 담아낸 책.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인생의 가치(목적)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선택의 기준을 보여준다.

尹동문은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완성하려면 ‘목적함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지지해줄 ‘수단매체’가 뒷받침이 된다면 ‘생존경쟁’의 장인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의지를 세우며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한다. 〈위즈덤하우스刊·값14,000원〉

■ 피터 드러커 강의

— 李在奎 譯



‘경영학의 아버지’, ‘깨어있는 지성인의 영원한 멘토’ 피터 드러커의 전 생애에 걸친 기념비적 강의를 총망라한 역사적인 저작을 李在奎(상학66-70 前대구대 총장)동문이 번역, 출간했다.

주한미군 방역자문관·한경실장, 신흥대 교수, 한미협회 정회원 등을 지낸 李澤求(농생물 55-59)

세계를 뒤흔든 전쟁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인터넷의 발달, 경제 강국으로서 중국의 등장 등 1940~2000년대에 걸쳐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현상들을 예고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강의들을 모은 전무후무한 책으로, 피터 드러커 사상의 출발점, 전개 과정, 종지점 및 경영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준다.

이 책은 사회·문화·정치·종교·심리·문학 등 방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며 미래를 예측한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사상과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을 그의 육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제경영 바이블이다. 〈랜덤하우스刊·값19,800원〉

■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

— 李鍾珪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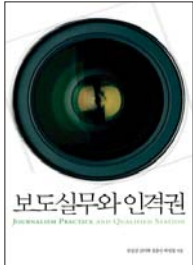
강원대 교육학과 李鍾珪(교육 68-72) 교수가 한국인에게 교육열이란 무엇인지, 교육열은 한국 교육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교육열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교육열을 모르고 사교육 문제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열을 알아간다는 것은 한국 교육을 제대로 보는 것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 책은 교육열을 가정에서도 정부에서도 잘 활용할 지혜를 가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교육열에 대해 가급적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상적인 비유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례에 적용해 제시함으로써 교육열이 우리의 생활과 교육 정책 실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실천적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이담북스刊·값15,000원〉

■ 보도실무와 인격권

— 柳一相 외 지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언론법을 가르쳐온 건국대 柳一相(신대원 72-7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교수와 언론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겨레신문 金利澤(공법 81-86)논설위원, 문화일보 鄭忠信(국문 81-85)문화부장, 매일경제신문 朴正喆(국문 87-93)사회부장이 함께 엮은 저널리즘 법제 실무지침서.

공연

■ 임명진 클라리넷 독주회

— 6월 24일 예술의 전당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한국현대음악앙상블(CMEK) 단원으로 활동 중인 임명진(기악 93-97)동문(사진)이 6월 2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라리넷 독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9~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에 선정된 임 동문은 이날 부조니, 고베르, 코플런드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李賢庭 첼로 독주회

— 6월 26일 금호아트홀



경원대·울산대 강사, 이니스앙상블 멤버인 李賢庭(기악 96-00)동문(사진)이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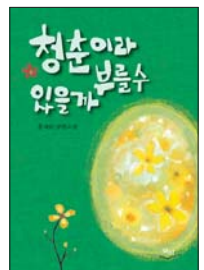
예일대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李동문은 러시아 작곡가 이렌스키,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뛰어난 연주력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그림으로 배우면서, 스스로 선별하도록 도와준다.

‘마녀 치과의사와...’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치아 관리가 어린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치과의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기구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알려준다. 〈신빛드미디어刊·각 권 값10,000원〉

■ 청춘이라 부를 수 있을까

— 홍재원 지음



답은 첫 장편소설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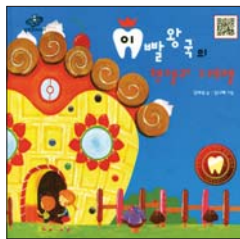
결보기에는 상큼하고 풋풋함이 느껴지는 청춘 연애소설이지만, 작가의 진심을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를 대학시절에 겪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정치 세계관을 그려낸 작품이다. 또 뒤틀린 교수사회와 빼돌려진 운동권을 고발한 사회성 짙은 소설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90년대’를 특정화한 이유에 대해 홍 동문은 “90년대 학번은 단순히 해체와 소비의 세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시작된 성숙의 시기였다”라면서 “지금 청년들이 겪는 ‘고난’의 기원이었던 IMF와 그로 인한 ‘대학의 황폐’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일리刊·값13,000원〉

■ 이빨왕국의 헨젤과 그레텔

■ 마녀 치과의사와 이빨요정

— 金載城 지음



의 정 부시에 샌프란시스코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載城(영어교육 82입)동문이 직접 쓰고 직접 출간한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치과치료동화 시리즈.

‘이빨왕국의...’는 한국인 누구에게나 친숙한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패러디해 치과에 대한 어린이들의 공포심을 해소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치아에

서울경제신문 기자를 지낸 홍재원(미학 95-99) 동문이 95학번 서울대생들의 사랑과 고민을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게재합니다.



△박창서(약대67) △우경자(가정대61) ◆1백만원 미만 △박상홍(의대64)
△안흥섭(IFP1) △엄재구(AMPP6) △윤석용(ACAD43) △이범재(법대59)
△이새나(미대88) <2011년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 1억 이상(금액별) ② 5천만원 이상 ③ 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 1백만원 미만 등으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義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50억원 △임광수(공대48) ◆20억원 △김종섭(문리대66) ◆15억원 △박관호(사대47) ·신명규(사대48) ◆10억원 △강신호(의대46) △곽영필(공대56) △구평희(문리대47) △김상하(문리대45) △김은중(상대59) △김정식(공대48) △김형주(공대46) △박용성(상대59) ·박용현(의대62) ·박용만(경영대73)	△박호전(상대62) ·김영희(음대62) △신창재(의대72) △오동영(공대54) ·김찬숙(치대56) △이준용(상대56) △정계영(상대61) ·송인경 △정팔도(AIP1) ·이지행 △홍성대(문리대57) ◆5억원 △김주진(법대54) △조기호(사대54) ·이영자(사대56) ◆3억70만원 △정석규(공대48) ◆3억30만원	△허남각(상대56) ◆3억원 △김병순(AMP4) ·이지호(의대77) △이길여(의대51) △조필제(공대46) ◆2억원 △남정현(공대57) △손경식(법대57) △이종기(상대69) △이준행(공대48) △장용택(약대55) △장학순(공대46) ◆1억7천2백20만원 △김도창(법대43) ·목촌5부자 ◆1억4천2백90만원 △화학과동창회	◆1억4천만원 △홍예표(치대65) ·김영숙 ◆1억3천5백만원 △장병덕(사대53) ◆1억2천만원 △엄병윤(문리대60) ◆1억1천6백50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1천1백20만원 △미대동창회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강신혁(문리대66)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박순일(AMP13)
--	---	---	--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1년 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1. 3. 9~5. 18) · 일반(2011. 3. 9~5. 18)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계두 行院84
△강윤모 차대80 △강인숙 자연83
△김미애 간호82 △김수영 AIP12
△김인규 공대85 △김종엽 AMP28
△김창환 ACAD27 △나도선 약대67
△남동환 법대82 △문병국 자연79
△서석해 AMP40 △손재국 문리65
△신 훈 사대63 △유영일 인문76
△이동철 의대77 △이범호 농대70
△이병영 자연82 △이상수 AMP53
△이서형 공대63 △임재원 음대76
△장경국 농대65 △정태숙 생활80
△조미경 의대82 △최우영 공대79

〈일반〉 △강 건 법대96
△강동원 AMFR27 △강석기 자연71
△강혜원 공대99 △강희원 AFP6
△고은봉 AMP33 △국상종 법대81
△권석현 공대99 △권순룡 공대76
△권혁세 경영76 △김해명 수의05
△김 진 ACAD65 △김경일 인문76
△김금주 SPAR18 △김능수 AMP70
△김명성 ACPM7 △김문호 법대53
△김방순 의대79 △김상운 사대83
△김성년 의대98 △김성래 차대53
△김성호 사회81 △김성호 공대06
△김신호 농대70 △김우성 공대64
△김이환 공대76 △김정섭 공대77
△김정주 공대86 △김종성 SPAR18
△김종원 공대74 △김종제 SPAR18
△김준옥 SPAR18 △김진석 인문77
△김창규 SPAR18 △김태균 SPAR18
△김태동 문리54 △김형일 문리54
△김형진 사회86 △김혜현 차대79
△남병원 사대39 △노경진 자연06
△라운영 차대60 △민태혁 농대62
△박경윤 사대69 △박문순 AFP6
△박상규 공대75 △박재현 의대86
△박정민 자연02 △박정수 SPAR18
△박찬욱 SPAR18 △박태호 상대71
△백인호 SPAR18 △서경호 사회87
△서동영 공대04 △서요한 법대85
△서정욱 상대59 △손진수 법대99
△손충남 상대62 △송영명 의대66
△신충식 ABP10 △신태호 공대93
△신희영 의대74 △안애숙 생활80
△안태국 AFB10 △양동석 경영81
△양병이 농대64 △양철우 인문83
△엄미령 의대84 △여형구 ACPM7
△오경수 AMP68 △오현규 SPAR18
△육순영 공대84 △우영태 AMP40
△유승희 SPAR18 △윤경미 농대07
△윤남근 법대77 △윤두현 SPAR18
△윤석하 상대64 △이광제 공대67
△이광호 문리68 △이교환 SPAR18
△이기형 사회84 △이미숙 SPAR18

△이병찬 AMP66 △이보청 SPAR18
△이상철 사회75 △이상현 공대01
△이윤택 SPAR18 △이재준 GLP22
△이정화 사대06 △이태호 SPAR18
△이택희 수의69 △이형철 공대84
△임병준 공대87 △임석우 경영81
△임선재 문리52 △임진환 AIC7
△장우형 음대72 △전부자 생활61
△정두현 의대84 △정문위 AIC30
△정민호 사회92 △정부균 SPAR18
△정삼진 SPAR18 △정상영 인문90
△정재호 SPAR18 △정재훈 ACPM7
△정흥기 공대76 △조병제 사회79
△조시완 AIP43 △조원국 AFP5
△조흥구 공대68 △천기성 법대91
△최명식 공대83 △최문구 차대94
△최일송 사회71 △최재호 공대75
△최준철 공대71 △한달룡 간호96
△한진전 사대79 △한창완 사회85
△함운경 자연82 △허덕신 ASP16
△홍 준 AMP70 △홍사우 공대56
△홍석우 사회74 △홍성욱 음대62
△황정규 SPAR18 △황종대 의대88
△황종식 SPAR18 △황준영 SPAR18

이 사

◆인문대 △강장일71 △나성린72
△배성호84 △손예철69 △임미화83
△임운봉64 △정제문72
◆사회대 △김광녕82 △김동선76
△김용숙76 △박재완73 △박희영80
△손영준89 △신철식73 △임유철84
△전홍찬79 △조영일77 △조현태73
△최상규80 △최영선77 △최익순73
△홍덕률76
◆자연대 △김진의84 △장대연74
△정민화84
◆간호대 △성송현74
◆경영대 △구자일86 △김명관82
△김종환92 △서준호86 △오정규74
△이윤호73 △이호선75 △최기상88
◆공대 △강의철73 △강희태58
△권명옥76 △권익현69 △김경배68
△김광옥62 △김명식74 △김병길64
△김상훈80 △김성철70 △김성환66
△김신원64 △김연철67 △김영수58
△김원배55 △김인선65 △김재수77
△김학세65 △노철균70 △문정석65
△문희성57 △박노상57 △박상수59
△박일재78 △박종택48 △박준창47
△박찬빈60 △박창용66 △박태원49
△박헌렬67 △박홍준71 △박황호65
△배기은57 △변동필75 △변영삼77
△변응현66 △서일홍73 △선석문68
△성기초51 △손태원72 △송우길84
△신동식72 △신윤승74 △신철영70
△안순신69 △안재휴52 △오성환59
△오정일64 △오창석69 △유승빈63

△유승빈63 △윤석구53 △이계수63
△이관수68 △이봉주67 △이봉환68
△이성규58 △이영한76 △이원도59
△이원세71 △이재형76 △이정일61
△이종남73 △이중성61 △이중재64
△이창복56 △이창호55 △이정룡61
△전상백53 △정귀출73 △정익주68
△조광연70 △조장현64 △조택호61
△주기태69 △최상오63 △최영식47
△최홍영69 △최효범77 △하태균86
△한관수73 △한도석78 △한정훈85
◆농대 △권오준65 △김상도69
△김양재78 △김영섭65 △김정묵59
△김훈동63 △나찬희73 △류기탁81
△목세균63 △박기수71 △박영문71
△박창용65 △부경생60 △석준호55
△손환규64 △신동수55 △오봉국48
△오승관77 △왕진무60 △유병서59
△유장열68 △윤동원79 △이규승67
△이상하56 △이연숙65 △이영권80
△이원덕80 △이혜근67 △정일성62
△조선종84 △최락현61 △최진규72
△허길행65
◆문리대 △강승렬62 △고영소56
△김규상57 △김용표68 △남광성61
△남기민69 △남태철65 △노재봉53
△류종택56 △민영기57 △박 실58
△박동수46 △박용길66 △박용안57
△박하진67 △박희준65 △석준형67
△신상우64 △양이훈65 △오수국72
△유순애70 △이경재60 △이병기66
△이영래60 △이영록66 △이인재64
△이정남51 △이종한62 △인태오57
△정기호70 △조완규48 △지경홍60
△천상덕71 △한태길69 △허운욱57
△황인광63
◆미대 △성기점58
◆법대 △강동세77 △강병섭68
△경우근67 △경종철60 △고현철65
△구분민77 △권연상58 △김경태63
△김두희58 △김선욱63 △김성수68
△김수철71 △김승호62 △김영우56
△김용원59 △김용환72 △김윤성76
△김인겸82 △김종일52 △김창복51
△김창희82 △김태조54 △김형선57
△나대진67 △명노승65 △문성우75
△문효남74 △박 만70 △박기태76
△박동완64 △박병명74 △박윤흔55
△박재경57 △박재권66 △박정규57
△박준서59 △배용재74 △변 욱57
△서정석67 △서승일67 △서원태67
△성백현78 △송진훈59 △신성철65
△신인식74 △안원모73 △안종윤51
△안종택73 △양영준72 △유기준78
△윤보옥66 △윤준원67 △이동득59
△이상배58 △이선우62 △이성호76
△이세훈55 △이수영74 △이외수63
△이인재73 △이인표54 △이재창56
△이종상54 △이창복74 △이흥구53

△임 경78 △임태유59 △전응진49
△정구영57 △정문화59 △정은구58
△제차룡60 △조상흠67 △조용무60
△조중환65 △주진학54 △차수명58
△최광률54 △최병구67 △최석원52
△최세관54 △한광수65 △한부환66
△현홍주59 △홍경식70 △황영선55
△황영하58
◆사대 △강봉근67 △고영신73
△곽후섭52 △김경애74 △김남조47
△김봉근60 △김수형61 △김영삼73
△김영진51 △김재호53 △김정기74
△김종원61 △박봉상59 △박화엽64
△박효석70 △백승권53 △소현영70
△안상수71 △안승룡75 △오윤용60
△왕문용66 △유덕준60 △이기영68
△이성묵67 △이주연79 △전성택54
△정용길77 △정재정70 △조광순74
△최기숙65 △최동환72 △최준명60
△하상기74 △한도연49 △함오연67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구선희56
△구영보69 △김상남66 △김정우65
△김종호54 △김철영70 △나길웅61
△남정우60 △노인환54 △민병관70
△박순일69 △박종민64 △박해룡58
△서주성44 △손희관46 △송인덕62
△신명수60 △심재엽63 △오강욱56
△우완식57 △유영일53 △윤우진61
△이광수50 △이근재48 △이승웅60
△이하룡69 △이호유54 △임종홍59
△전문준64 △전창수57 △정태웅67
△조창제57 △최부완54 △한병무59
△황 훈68 △황동규63
◆생활대 △박복순70 △여의주82
△정현희72
◆수의대 △김경환80 △김계방61
△김윤수74 △김인호53 △나종국54
△박영찬81 △박희준66 △이도필49
△정용근67
◆약대 △김 유60 △김길수60
△김명수71 △김상수66 △김장호65
△박승규59 △박시우69 △배영일60
△심규장70 △오성환60 △오용준58
△원희목73 △윤용찬68 △정연진69
△지현석56 △최명식64 △최진곤77
◆음대 △김우진77 △민미란73
△신수정59 △신정혜77 △이명희68
△차정현67
◆의대 △강일태74 △고건성67
△고영채74 △고형일64 △김근식53
△김광화55 △김근우61 △김병수54
△김승욱50 △김영근43 △김종숙77
△김현우64 △김형주55 △김환규78
△남상윤72 △박소배72 △박호진72
△선위환71 △손근찬52 △신기철75
△심달섭45 △양승열51 △유명철61
△이명철67 △이수일69 △이순형56
△이승덕83 △정영덕70 △정유조85

△정을삼60 △추광철60 △하재동51
△하재인44
◆치대 △강대준62 △김 현67
△김기현56 △김봉호56 △김정자59
△김종우71 △김종훈73 △김지호59
△김태의60 △김홍석59 △박상균66
△박종만69 △박찬유65 △배현성64
△변기정65 △부삼환58 △유재석70
△이진근63 △이한무65 △임순모70
△조성복55
◆대학원 △김석웅81 △나병만77
△문형근79 △박성호95 △양일석73
△윤용훈97
◆경대원 △김호봉68 △장똥인66
△전도진70 △조현국73
◆교대원 △장성민70
◆보대원 △박원길65 △박종안72
△박희서77 △조경종68
◆사대원 △송정호66 △정경식63
◆신대원 △유일상72 △황영일70
◆행대원 △문희갑66 △양석호67
△유금록78 △장준규65 △정영섭66
△허남식78 △현경병85
◆한대원 △권 완76 △박상락84
△석영철71
◆AMP △곽상엽34 △권오영64
△김득식57 △남중철48 △박석휘52
△박순일13 △성영창26 △이규철44
△이용표36 △장영준62 △장희수45
△전현찬44 △차문현67 △전용택31
△최호경28
◆AIP △김후곤17 △박몽식16
△이명호20 △이석준27 △이성남29
△이의현20 △정창현20
◆ACAD △가점노39 △박명규40
△배운도54 △이강국63 △전 흥48
△진강현20
◆ABP △정시택23
◆SGS △김덕우9 △김승규7
△손성오12
◆APC △김복승3 △이용배5
◆HPM △김 웅6 △박천표11
△성현제7 △엄신흠14 △이정희12
△이태수6 △장성호6 △최병용9
△최선희17
◆AMPP △류귀식7 △이귀복5
◆AMPFRI △김명중16 △김정훈1
△최창혁4
◆ACPMP △박태영2 △정원배3
◆FIP △이재병1 △황귀봉1
◆GLP △박옥영14
◆ALP △부봉훈2 △임장현2
△조강언6
◆SPARC △노창호10 △이의시9
△전용갑14 △조혜자13

일 반

◆인문대 △가희창02 △강남규84

△강지연⁰³ △고동호⁷⁹ △김동국⁸³
△김매리⁰⁷ △김성동⁹⁸ △김성호⁸⁷
△김정원⁰² △김종민⁸³ △김헌태⁸²
△남상백⁹⁶ △류은숙⁰⁴ △문병규⁰⁴
△박차석⁷⁶ △변우식⁷⁷ △신남경⁸⁷
△양백항⁰⁸ △오성민⁹⁷ △우현아⁰²
△원종명⁹⁹ △윤종옥⁰⁶ △이성영⁸²
△이영인⁷⁷ △이주영⁰⁵ △이주환⁰⁷
△이준상⁶⁵ △이차훈⁸³ △임삼진⁸⁰
△임지원⁰⁵ △전상욱⁰⁰ △채려목⁰⁴
△허기원⁹⁸

◆사회대 △강영욱⁸³ △강지윤⁰⁵
△공준호⁰³ △곽귀병⁰⁴ △구현희⁰³
△김기령⁷⁵ △김동섭⁸¹ △김만환⁷⁹
△김복준⁰⁰ △김상혁⁰² △김준범⁸⁴
△김혁래⁹⁸ △도종윤⁹⁷ △박근원⁰³
△박디혜⁰⁴ △박수진⁰⁴ △박영욱⁸⁷
△박정호⁸³ △박종철⁹⁰ △박준서⁸⁰
△방진욱⁹¹ △배정민⁰⁰ △배종하⁷⁵
△백두현⁸² △변동희⁷³ △서정현⁰³
△석태수⁷³ △성길제⁰⁴ △손신명⁷⁸
△손영수⁸⁷ △송상종⁷⁸ △송성욱⁸⁷
△송치영⁸¹ △송호상⁷⁴ △안재완⁸⁶
△안재현⁰⁵ △안종근⁶⁸ △오기원⁹⁷
△오영환⁸² △오정민⁰⁷ △원영준⁹⁰
△은기수⁸¹ △이경호⁷⁵ △이영진⁹¹
△이정훈⁰⁴ △이해금⁷⁶ △임재금⁹⁴
△장희경⁰⁷ △전상현⁹¹ △정지용⁹⁶
△조용흥⁷⁶ △주순식⁷³ △최재석⁰²
△최형근⁶⁹ △추연우⁰⁶ △한낙영⁰²

◆자연대 △강 항⁰⁶ △김대환⁰²
△김보미⁰⁷ △김석규⁰⁴ △김성환⁰⁰
△김승모⁸⁶ △김정은⁰⁶ △김주환⁸⁴
△김준식⁹¹ △김진우⁰⁵ △김훈민⁰¹
△박영민⁰¹ △박유나⁹⁶ △박지윤⁰⁶
△박혜령⁰⁰ △상은정⁰⁴ △서흥원⁸⁸
△성상현⁰⁷ △소상완⁸⁶ △손승민⁰⁸
△손지훈⁰⁴ △송성식⁸⁴ △안득수⁰²
△오유정⁰⁵ △오은정⁸² △유정식⁰⁸
△유희원⁰³ △이길영⁰⁰ △이동영⁰¹
△이동준⁰² △이명웅⁷⁷ △이병일⁹⁴
△이병철⁰² △이상규⁰⁵ △이세민⁰²
△이슬기⁰⁴ △이원석⁰⁵ △이은진⁰⁸
△이준영⁸¹ △이찬서⁸² △이철현⁸²
△이충렬⁰⁰ △이호선⁹⁶ △임태순⁷⁹
△전희진⁰² △정민선⁰⁴ △정몽준⁰¹
△조동원⁷³ △조영길⁷⁴ △조재린⁹⁰
△하 룡⁰⁷ △한명숙⁸⁰ △홍한움⁰⁴
△황동규⁸⁴

◆간호대 △권오겸⁵⁶ △김기희⁶⁵
△김용범⁰⁶ △박양자⁶⁰ △신은숙⁶⁵
△염윤정⁰⁶ △이현정⁰⁴ △황애영⁶⁸
△황은성⁰³

◆경영대 △강왕수⁸⁴ △강태웅⁷⁹
△고두형⁰¹ △김기웅⁸⁴ △김기준⁰³
△김대혁⁸¹ △김두봉⁸⁶ △김성민⁰⁰
△김성민⁰² △김용철⁸³ △김윤호⁷⁰
△김형태⁸¹ △노진만⁸³ △박영관⁰⁴
△박주선⁸⁶ △박현우⁰³ △배웅두⁰²
△변은창⁹⁰ △이상전⁷² △임정오⁶⁸
△장성욱⁹⁸ △정광현⁰⁴ △정준희⁸⁹
△조현택⁸³ △최창목⁸²

◆공대 △강경택⁵² △강달영⁸⁷
△강민지⁰⁴ △강봉돈⁷¹ △강영식⁶⁴
△강영택⁶³ △강은구⁹⁷ △강호진⁰²
△고근희⁵⁴ △고희승⁰⁷ △곽두영⁰⁵
△곽삼진⁵² △구정모⁹³ △권보일⁶⁹
△권태홍⁰⁷ △김광은⁶³ △김규남⁴⁷
△김대성⁰⁰ △김도원⁹² △김동화⁰³
△김명선⁰⁶ △김병제⁵² △김병호⁷⁸
△김병훈⁹⁸ △김상문⁰⁶ △김상수⁶⁶

△김상원⁹⁴ △김서희⁰³ △김석철⁶²
△김성권⁹⁷ △김연섭⁹⁷ △김영문⁵⁶
△김영민⁷³ △김영석⁷⁷ △김영신⁸⁹
△김영학⁰⁰ △김용인⁶⁶ △김용태⁵³
△김우진⁰⁵ △김윤제⁶² △김인달⁷⁰
△김인송⁰⁵ △김재업⁸⁷ △김재용⁰⁷
△김재현⁰⁵ △김재형⁵¹ △김재형⁰⁷
△김정우⁵⁶ △김정인⁹⁴ △김정철⁵⁵
△김종명⁷⁰ △김주영⁵⁵ △김주하⁰¹
△김진섭⁰⁶ △김진욱⁹⁹ △김진일⁷¹
△김진한⁰⁰ △김철순⁵³ △김철호⁷²
△김태녕⁸⁶ △김태현⁵⁸ △김해전⁵²
△김현동⁰⁶ △김현태⁹⁹ △김형호⁹⁸
△김흥기⁶⁵ △나영욱⁷³ △남광문⁶¹
△남궁석⁵² △남대현⁰⁷ △남원장⁹⁹
△남지연⁰² △남학우⁵⁴ △노성준⁰⁶
△노호철⁰² △노홍조⁴⁸ △류채우⁰⁷
△문영식⁰⁶ △문준영⁰⁶ △문지원⁹⁷
△민웅기⁹¹ △민철기⁵⁶ △박경호⁷³
△박두곤⁵³ △박만식⁰⁹ △박명준⁵³
△박민서⁷⁹ △박민환⁹⁸ △박승배⁰⁹
△박시동⁶⁰ △박영규⁵⁸ △박용기⁷¹
△박용승⁵⁴ △박우성⁰³ △박인오⁸³
△박인혁⁹⁴ △박장영⁵⁸ △박재복⁵⁸
△박정주⁷⁸ △박정화⁰⁷ △박종로⁰¹
△박종인⁹⁷ △박준수⁰⁰ △박지성⁰³
△박진호⁰⁵ △박한샘⁰⁶ △박현철⁸⁵
△박형기⁸² △박희규⁵⁴ △박희전⁰⁷
△배성준⁹⁹ △배성한⁰² △배준일⁹⁸
△백상진⁹⁴ △백용현⁴⁸ △백효석⁶²
△서민우⁰⁰ △서유민⁰⁷ △서주연⁰⁷
△성광재⁸¹ △성문웅⁶¹ △성운준⁰⁵
△성윤경⁰⁹ △성호용⁰³ △손승래⁵⁴
△손택만⁸² △송선후⁵⁷ △송영진⁰⁶
△송재규⁵⁵ △송철상⁶¹ △신동엽⁰⁰
△신정철⁶⁷ △심풍수⁷⁶ △안귀용⁰¹
△안석기⁰³ △안정기⁰³ △안정호⁹⁶
△안준영⁵² △양정웅⁶⁸ △염규섭⁵⁶
△염유신⁷⁹ △오병진⁰⁹ △오신남⁶⁰
△우경호⁷⁸ △우종민⁹⁷ △유경진⁰⁷
△유병욱⁹⁷ △유병준⁰⁶ △유승현⁹⁹
△유심덕⁶¹ △유영호⁰⁵ △유일상⁵⁷
△윤기봉⁰⁴ △윤도영⁶⁹ △윤여남⁰⁰
△윤준식⁰¹ △이경신⁸² △이경태⁵³
△이경환⁶³ △이규생⁵⁷ △이규창⁵¹
△이규화⁶⁸ △이기라⁰² △이기설⁴⁷
△이동호⁶⁵ △이명식⁴⁹ △이미지⁰³
△이병무⁶¹ △이상규⁹⁸ △이상순⁵²
△이상준⁰⁷ △이석규⁵⁷ △이성렬⁴⁵
△이성주⁹⁸ △이세도⁷³ △이승률⁵⁵
△이신욱⁵² △이영상⁰⁸ △이용욱⁹¹
△이용희⁷¹ △이원모⁰⁰ △이의남⁶²
△이인태⁵³ △이인희⁵⁶ △이장원⁹⁹
△이재범⁰¹ △이재호⁸⁶ △이정우⁶¹
△이정우⁰³ △이정준⁰¹ △이정호⁶⁵
△이제근⁵⁶ △이종수⁶⁵ △이주휘⁰³
△이창섭⁰⁶ △이창주⁹⁷ △이태민⁸⁵
△이현진⁰⁶ △이홍근⁶⁵ △이희승⁰²
△임용택⁵⁵ △임종엽⁵⁰ △임훈준⁸⁶
△장민석⁹² △장병진⁵³ △장재호⁹⁶
△전병규⁰¹ △전석병⁰⁰ △전유정⁰⁸
△전재도⁰⁷ △전현철⁰⁷ △전홍기⁶⁹
△정규홍⁸² △정동연⁰⁷ △정두구⁰⁷
△정병일⁵⁰ △정병호⁰⁵ △정상훈⁰⁵
△정석현⁵¹ △정영근⁸¹ △정우석⁹⁸
△정을호⁶⁸ △정인수⁷³ △정재현⁰²
△정종섭⁸⁴ △정충길⁷⁰ △조국영⁹²
△조득호⁶⁶ △조승우⁹⁵ △조영선⁶³
△조영호⁶⁷ △조장하⁵⁷ △조창현⁸⁴
△조한모⁶¹ △채 철⁶¹ △채수창⁶²
△최석주⁵¹ △최의원⁵⁴ △최인영⁶³

△최장운⁰⁹ △최종민⁰¹ △최호병⁶⁰
△최환규⁸³ △편영준⁷⁷ △하상모⁹⁸
△하운석⁹⁵ △하종민⁰⁵ △한건우⁵⁵
△한록희⁷⁸ △한태영⁹⁵ △한현철⁰⁵
△허광엽⁰⁵ △홍석환⁹⁸ △홍성민⁰⁴
△홍성우⁰³ △홍성철⁸⁷ △홍훈기⁰⁰
◆농대 △강경구⁸⁸ △강경원⁵²
△강문주⁴⁵ △강인목⁵⁴ △고해광⁶⁰
△공대우⁰³ △공민영⁰⁵ △김두만⁵²
△김무수⁸⁹ △김문수⁵⁴ △김병철⁷⁰
△김봉규⁸² △김봉수⁵⁰ △김삼식⁵³
△김영규⁵¹ △김용찬⁵⁷ △김재우⁶⁹
△김종원⁵⁷ △김종전⁵³ △김종철⁸⁶
△김진웅⁶⁰ △김진철⁵¹ △김학기⁶⁵
△김한태⁸³ △김현주⁰³ △남구한⁶⁰
△남상운⁸⁰ △노재흥⁵⁶ △류충렬⁷⁴
△민선홍⁵⁸ △박경석⁵² △박석호⁰²
△박정명⁹⁵ △박정수⁶¹ △박정윤⁵⁵
△박종문⁶⁴ △박진화⁵⁷ △박창용⁵⁵
△박한수⁸² △박홍목⁵⁶ △반성환⁵⁰
△방수자⁶² △배대환⁴⁸ △백유현⁵⁵
△변양석⁵⁹ △변영숙⁷⁰ △복성해⁶²
△서경겸⁶⁷ △손광훈⁶² △손낙률⁵⁶
△손형은⁰⁷ △신민중⁷⁹ △신상혁⁵⁶
△신언근⁵⁴ △신현우⁰¹ △심상우⁵⁷
△심익구⁵⁰ △양대성⁹⁸ △양시원⁰²
△양춘웅⁶³ △염태영⁸⁰ △오수영⁵⁹
△오화영⁵⁶ △오희정⁵⁷ △우무일⁶⁴
△유광일⁶⁶ △유근학⁵⁵ △유기성⁵⁶
△유종철⁵⁷ △윤동면⁶⁵ △윤득노⁰⁴
△윤봉규⁹¹ △윤용근⁵² △윤종선⁸⁴
△이경용⁵³ △이계은⁵⁵ △이길영⁷⁹
△이덕립⁵⁸ △이두철⁸¹ △이무영⁸⁰
△이봉대⁷⁴ △이상직⁵⁶ △이상호⁵²
△이상화⁷⁴ △이수봉⁵⁷ △이수욱⁵⁵
△이영열⁵⁴ △이원식⁵³ △이장원⁰⁴
△이재홍⁹⁷ △이정남⁶¹ △이종희⁸⁶
△이주호⁹⁹ △이준원⁸¹ △이지은⁰⁷
△이창주⁰³ △이태영⁵⁴ △이택구⁵⁵
△임 빈⁰⁷ △임성빈⁵⁷ △임용재⁶⁷
△장길완⁸² △장세종⁶⁶ △장정식⁶¹
△전성익⁵⁵ △정병기⁵² △정세윤⁰⁶
△정승우⁰² △정연석⁴⁸ △정용복⁵¹
△정재용⁷⁹ △정태상⁰⁸ △정태영⁶⁶
△조규탁⁸⁶ △조기상⁹⁰ △조성진⁴⁸
△조준기⁵⁴ △차영준⁵¹ △최동균⁵⁶
△최석환⁶² △최영대⁹⁵ △최원개⁵⁰
△최현팔⁶⁸ △한광희⁵⁵ △한기학⁵²
△한석현⁵² △한정섭⁸⁸ △한정수⁵¹
△한해룡⁵⁵ △허삼남⁶⁸ △홍순홍⁵⁸
△황병순⁰⁴ △황용진⁵⁶ △황재문⁶⁹
◆문리대 △권순식⁶⁵ △권태승⁵⁵
△기우탁⁵⁷ △김규완⁵⁷ △김기근⁶⁹
△김담구⁵⁸ △김동일⁵⁸ △김동진⁶²
△김삼욱⁶¹ △김석준⁴⁴ △김선리⁶⁴
△김영성⁶² △김유석⁵⁵ △김일송⁶³
△김종엽⁶¹ △김중하⁵⁷ △김찬근⁶⁹
△김현권⁷¹ △김홍철⁵³ △문무홍⁶⁷
△민홍식⁵⁵ △박금자⁶⁶ △박우동⁵⁸
△박종민⁵⁴ △배정룡⁵³ △백영근⁵⁵
△변광수⁶⁵ △변재도⁵⁶ △서창모⁶¹
△송권용⁵⁸ △송길상⁴⁸ △송창기⁵⁷
△송하영⁵⁸ △신섭중⁵² △신영근⁴⁷
△심기철⁶¹ △심사수⁵⁴ △안광식⁴⁹
△안석주⁶¹ △안승원⁶⁸ △양은승⁴⁷
△양정섭⁴⁷ △오권태⁵⁶ △오근영⁵⁹
△오세한⁶⁶ △원이숙⁵⁴ △유규영⁵⁹
△유희근⁶⁴ △윤병석⁵² △이 강⁵⁶
△이강조⁵⁶ △이광열⁷¹ △이광웅⁵⁹
△이근남⁶⁸ △이도일⁶⁵ △이상열⁷¹
△이상택⁶¹ △이영재⁶² △이영훈⁶⁵

△이용길⁶² △이용웅⁶⁵ △이재술⁵⁷
△이정란⁵⁹ △이정배⁵⁶ △이정숙⁵³
△이정숙⁵⁷ △이종인⁵⁴ △이종길⁶²
△이지영⁶⁷ △이진국⁷¹ △이한국⁵¹
△임홍빈⁵⁸ △정관철⁵⁹ △정국록⁷¹
△정기인⁶⁰ △정덕진⁶⁵ △정봉택⁵⁰
△정서구⁶⁵ △정영채⁶² △정대훈⁵³
△조 흥⁶⁶ △조원홍⁷¹ △차효인⁶¹
△최규봉⁵³ △최봉석⁶⁹ △최연대⁵³
△한정인⁵⁰ △한계근⁶⁴ △허 문⁶⁷
△현승일⁶¹ △홍경화⁵⁴ △황원섭⁶⁴
△황종철⁶⁷

◆미대 △강대운⁵⁵ △강건희⁰⁶
△김경애⁶⁸ △김민지⁰¹ △김상진⁰⁰
△김지연⁰⁷ △김학두⁵¹ △김혜미⁰⁶
△김희춘⁶² △박상민⁶¹ △박윤정⁰⁶
△박정기⁶⁴ △박종규⁶⁹ △성기완⁵⁸
△양강석⁰⁷ △우병탁⁷⁶ △이계안⁵⁹
△이에린⁰⁵ △이우범⁶⁷ △임도현⁰³
△장 훈⁹⁹ △장혜진⁰¹ △전경미⁰²
△정혜욱⁸⁷ △조재구⁶⁰ △최경주⁰⁴
△현숙자⁵⁶ △홍순무⁵⁴ △황인혜⁶⁵

◆법대 △강기원⁶⁵ △강세원⁸⁹
△고명운⁵⁴ △고왕석⁶¹ △고재화⁶²
△공영규⁵⁹ △곽희준⁵⁸ △김 철⁸³
△김 훈⁸⁵ △김강태⁶⁶ △김광주⁶²
△김기경⁸⁵ △김기수⁴⁷ △김기형⁵⁰
△김남식⁵⁷ △김동규⁰³ △김민성⁰⁷
△김민정⁰³ △김범수⁸² △김봉환⁶¹
△김상기⁶³ △김선병⁸¹ △김선중⁷⁰
△김소연⁰⁴ △김양섭⁹⁰ △김용대⁷⁹
△김용덕⁷⁶ △김용환⁵² △김응완⁵⁵
△김인욱⁷³ △김재규⁵⁷ △김재기⁶⁸
△김정기⁷⁵ △김정일⁹⁷ △김정중⁹¹
△김종국⁶⁵ △김종기⁷⁵ △김종수⁸⁴
△김종환⁶⁸ △김준섭⁶¹ △김중성⁸¹
△김진병⁸⁵ △김진홍⁵⁷ △김찬동⁵⁰
△김태리⁰⁴ △김태병⁸⁵ △김항경⁶⁴
△김황식⁶⁷ △김희수⁸⁰ △김희용⁶⁰
△노용희⁴⁸ △노인수⁷⁶ △도정환⁸³
△라종훈⁶⁴ △문종관⁵⁹ △문진구⁰¹
△박병규⁵⁵ △박성달⁵⁶ △박세철⁵¹
△박순범⁷⁷ △박장우⁶⁶ △박태호⁶⁷
△박해봉⁸³ △반성우⁵³ △방영민⁷⁸
△배정훈⁰⁷ △백 린⁵⁹ △백영철⁶⁸
△서영덕⁵⁷ △석광세⁵⁹ △손기식⁶⁸
△손승우⁰² △송기영⁶⁹ △송세빈⁸¹
△송재현⁶⁰ △신진민⁶⁰ △심한준⁵⁹
△안경수⁹⁹ △안기영³⁶ △안길용⁶⁵
△안반일⁶¹ △안재식⁵⁷ △안창수⁵²
△오세현⁷⁸ △오장희⁵⁶ △오정돈⁷⁹
△유재영⁰⁴ △윤두식⁵³ △윤서성⁶²
△은현호⁸⁷ △이 흥⁶² △이경환⁰⁴
△이민재⁷² △이민지⁰⁵ △이병돈⁷³
△이상진⁷⁰ △이상철⁵² △이상규⁹²
△이성준⁰⁴ △이영의⁵⁹ △이용규⁸⁸
△이용남⁵⁹ △이용범⁵⁸ △이용우⁶⁰
△이원기⁸¹ △이원재⁰⁵ △이원진⁰⁵
△이은종⁷⁷ △이재복⁰⁵ △이재희⁰⁸
△이제재⁴⁷ △이준상⁸⁵ △이태윤⁰⁵
△이태희⁵⁸ △이한춘⁵³ △이해진⁸⁶
△이혜진⁰⁹ △이희정⁹⁴ △임상현⁵⁹
△임승관⁷⁰ △임안식⁷³ △장경미⁹⁹
△전인환⁰⁹ △전태환⁸⁴ △정선태⁷⁵
△정성문⁸³ △정세욱⁵⁶ △정일만⁷²
△정현수⁷⁵ △정혜리⁰³ △조두현⁴⁹
△조봉근⁵⁸ △조영목⁰² △조장혁⁹⁰
△조지만⁹⁰ △차철순⁷⁰ △채무성⁰⁷
△채승우⁸⁸ △채의석⁵⁷ △천경승⁵⁷
△최병남⁶⁴ △최병덕⁷² △최석문⁸⁶
△최석원⁰⁵ △최세윤⁰¹ △최용구⁰⁰

△최정운⁰⁷ △최주영⁸⁶ △한경수⁷²
△한상근⁰² △한연수⁹⁵ △한영광⁶³
△한예슬⁰⁷ △한주상⁶³ △허승태⁷³
△현종찬⁷⁴ △황선표⁵⁹ △황성일⁵⁶
◆사대 △강은지⁰⁷ △강철인⁶⁶
△고두현⁷² △고무송⁶⁵ △고용섭⁵⁴
△구지혁⁵⁷ △권 승⁷⁶ △권광욱⁵⁴
△권오룡⁵⁶ △권행준⁶⁹ △김 탁⁵²
△김관섭⁷⁹ △김규호⁵⁵ △김대용⁰⁰
△김대의⁰³ △김병국⁵⁶ △김봉호⁶⁸
△김상현⁶⁶ △김선주⁷⁶ △김성식⁵⁷
△김영철⁶⁴ △김재성⁷⁹ △김종우⁵⁴
△김주경⁵⁵ △김준호⁵⁰ △김혜선⁰²
△김혜우⁶⁴ △김흥태⁷³ △김희분⁵⁰
△나동진⁶⁶ △남기중⁵⁴ △노재현⁷⁷
△민청옥⁴¹ △박대영⁸⁰ △박병윤⁶⁵
△박병서⁷⁷ △박상필⁷⁶ △박소희⁰⁶
△박영서⁷⁵ △박윤진⁵⁹ △박인식⁴⁸
△박인호⁵³ △박정남⁵⁷ △박종대⁷¹
△박영묘⁹⁸ △변희준⁵⁸ △서해지⁰⁶
△설동균⁶⁸ △손종국⁵⁵ △신각범⁵⁴
△신상인⁰³ △신승기⁸³ △신용국⁵⁵
△신태우⁵⁸ △안석로⁵³ △오이리⁰⁴
△오정익⁹⁹ △오해균⁷⁷ △온기수⁷⁴
△우인섭⁴⁷ △유명수⁶¹ △유상주⁵⁸
△유성렬⁷⁴ △유희임⁶⁸ △윤종상⁵²
△윤희태⁹⁹ △은성혜⁰⁶ △이규식⁵⁸
△이달덕⁷⁰ △이득우⁷⁴ △이민형⁶²
△이미영⁸³ △이병선⁵¹ △이상경⁶⁵
△이상철⁵⁹ △이석주⁶⁰ △이성현⁵⁶
△이성호⁵⁸ △이승우⁶¹ △이영윤⁵⁸
△이용덕⁷¹ △이윤희⁰⁵ △이재만⁵²
△이재명⁰³ △이재선⁰¹ △이종명⁵⁴
△이주욱⁹⁷ △이주행⁶⁷ △이준형⁷⁷
△이주리⁰² △이흥종⁵⁴ △

△진창갑⁵⁴ △차병권⁴⁴ △허 길⁵²
△허재원⁵⁶
◆생활대 △구명진⁰⁵ △김경애⁶⁶
△김남미⁷³ △김동우⁹⁹ △김보람⁹⁸
△박명희⁷¹ △박문학⁶⁰ △박미현⁰⁶
△백선자⁶⁴ △신은철⁷³ △안은정⁰³
△엄윤경⁷⁸ △오명숙⁷⁰ △육완진⁵⁷
△윤승건⁰⁵ △이아름⁰⁵ △이지영⁰⁶
△이진경⁰² △조혜자⁶⁰ △채미희⁷⁷
△최규순⁶¹ △하승연⁰⁵ △홍산윤⁵⁷
◆수의대 △강석주⁵⁵ △고성욱⁵⁷
△고의식⁵⁶ △구본훈⁵⁴ △권순호⁵³
△김용대⁶³ △김정오⁶² △김정훈⁶²
△김준삼⁵⁵ △김협수⁸¹ △박기환⁴⁹
△박만규⁵⁰ △박양기⁵⁶ △박영혜⁸²
△박유순⁶³ △백영환⁵⁶ △손병훈⁵⁴
△송기홍⁶¹ △오남진⁶⁷ △우정현⁷⁵
△유시영⁸³ △윤석정⁶¹ △이강훈⁵⁸
△이상우⁶⁵ △이영주⁸³ △이완준⁶²
△정승기⁵³ △정영시⁵⁴ △정정현⁵⁹
△제병전⁰⁴ △조병왕⁶¹ △조중호⁴⁹
△최윤주⁰⁰ △황병주⁵⁷
◆약대 △감규상⁵⁶ △강장원⁵³
△김 식⁶⁸ △김규형⁵³ △김미혜⁸⁷
△김양오⁶⁰ △김영길⁶¹ △김원선⁵⁴
△김용길⁶⁴ △김진형⁸⁸ △김태환⁰⁷
△김현옥⁵⁷ △김형진⁰⁴ △김호원⁶⁵
△김홍대⁵⁹ △김희중⁵⁹ △나명철⁶⁹
△류한호⁶⁰ △문창규⁵⁹ △박경래⁵⁷
△박기숙⁸⁶ △박선희⁰⁹ △박성원⁹³
△박은유⁸³ △박전령⁰⁶ △박태동⁷⁷

△박태선⁰⁴ △서남현⁵⁹ △서동화⁶⁹
△서성수⁵³ △송순자⁶⁰ △심우철⁰⁷
△심은숙⁵¹ △이계준⁶⁴ △이상구⁵⁸
△이성태⁶⁰ △이재호⁷² △이홍래⁵²
△이희운⁶⁷ △정동원⁵³ △정왕윤⁵⁴
△정환수⁵¹ △조은정⁰⁰ △조중현⁶⁸
△차민정⁰⁹ △함방숙⁶⁶ △허진종⁶¹
△홍순태⁶⁷ △홍승철⁵³
◆음대 △고윤희⁹⁸ △김순옥⁷³
△김연진⁰⁶ △문혜신⁹⁴ △박성진⁰²
△박정임⁷³ △백재은⁹⁴ △서수민⁹⁷
△성양자⁶⁰ △송미령⁰⁶ △송복자⁸⁴
△송영옥⁸⁰ △신혜영⁹³ △안형일⁵³
△오주희⁰⁴ △유새롬⁰⁴ △윤완숙⁶²
△이은화⁰⁶ △임경하⁰⁶ △정혜연⁰²
△한애화⁸⁴ △허미경⁸¹ △현병화⁴⁸
△홍승현⁸¹ △황수아⁹⁸
◆의대 △강정후⁷⁶ △권영길⁴⁷
△김 윤⁶² △김광우⁰⁷ △김득구⁵⁰
△김병철⁸⁵ △김보리⁰⁷ △김선민⁰⁰
△김소연⁷⁴ △김용식⁷¹ △김용진⁶⁹
△김우영⁴³ △김종박⁵⁹ △김종원⁹⁶
△김진영⁵⁰ △김현정⁰³ △박성근⁸⁹
△박순일⁵¹ △박재용⁰⁷ △박중원⁷⁷
△박춘식⁷² △박현경⁰⁷ △서대현⁸¹
△서동우⁸¹ △서정후⁵⁰ △송인배⁷³
△신용찬⁵⁴ △양세원⁷⁸ △유언호⁵⁴
△윤병란⁷⁹ △윤용구⁶⁶ △이대규⁹¹
△이동명⁷³ △이봉화⁷⁵ △이성희⁸⁶
△이수동⁶⁸ △이승철⁷³ △이철현⁶⁷
△정태산⁵³ △조일균⁵⁵ △조준용⁰⁷

△최병휘⁷³ △최응석⁸² △최희옥⁵¹
△추아정⁰⁴ △한기준⁵² △한종수⁰²
△한지현⁰⁷ △홍기석⁶⁸
◆치대 △강신구⁶⁵ △강인희⁷⁷
△고영식⁶⁸ △김교식⁷² △김기성⁸²
△김명원⁵⁰ △김명효⁷⁵ △김문기⁶⁶
△김성곤⁶⁶ △김세일⁷⁷ △김용철⁶³
△김윤이⁷³ △김진홍⁷⁸ △김화봉⁷⁷
△김화춘⁵⁹ △김효순⁶⁸ △나병선⁶⁹
△박중옥⁸⁰ △박주태⁷⁰ △서성구⁷⁴
△성소래⁹⁹ △송병욱⁶⁵ △송채현⁷⁵
△신정훈⁶⁵ △신철수⁷¹ △양무도⁷⁰
△염경철⁶¹ △염성환⁷² △오인식⁵⁶
△윤귀성⁸⁰ △윤정숙⁷¹ △윤훈용⁵³
△이상표⁷⁷ △이용덕⁸¹ △이원철⁶³
△이점식⁶¹ △이택훈⁷¹ △임성균⁵⁹
△정관서⁷⁹ △정인환⁶⁰ △조한준⁵³
△최선배⁸² △최승은⁶³ △허 식⁵³
△홍성호⁹⁵ △홍중옥⁵⁵
◆대학원 △강우식⁸³ △강혜영⁹¹
△고진석⁹⁹ △권호기⁸³ △김동선⁵⁹
△김상복⁹⁸ △김송득⁸⁹ △김현택⁸²
△민경부⁸⁴ △박용중⁸² △박용희⁶²
△양기주⁹⁵ △윤경섭⁸⁹ △윤제범⁸²
△이강현⁹³ △이상엽⁸⁶ △이정도⁶⁷
△정병희⁵² △진선주⁶² △최연희⁸³
△홍종각⁸⁶
◆경대원 △강희경⁷¹ △조정희⁶⁹
◆MBA △김승준¹⁰ △이주연¹⁰
△장 옥⁰⁹
◆국대원 △강상준⁰² △유석원⁰⁹

△이진우⁰⁹
◆보대원 △강혜경⁸⁰ △구근혜⁶⁷
△김귀향⁷⁹ △김삼권⁸⁴ △김상욱⁸⁷
△김주희⁷² △김한상⁸⁴ △박상욱⁰⁴
△박주홍⁸⁶ △신금호⁷² △이수형⁰¹
△조현우⁰⁹ △한서경⁶⁵
◆사대원 △김영준⁷⁰
◆신대원 △윤임술⁶⁹ △이준우⁷³
△한형수⁷⁶
◆치대원 △허현빈⁰⁷
◆행대원 △강남구⁰⁸ △공상훈⁰⁸
△김종성⁸¹ △남광수⁷⁹ △박광무⁸⁷
△박성환⁸⁴ △박완신⁷⁷ △배용태⁸³
△서일수⁶⁷ △설근태⁸⁸ △심윤수⁸¹
△엄현희⁸² △이기섭⁷⁷ △정병철⁷⁷
△채희성⁷¹ △최대용⁸⁵
◆환대원 △강덕원⁸⁵ △신언교⁸⁷
△강언모⁸² △이 혁⁰⁷ △이종현⁰²
△최길대⁸² △허 완⁷⁴ △황익수⁰⁹
◆AMP △강동한⁶⁸ △강은채⁴⁴
△고순동⁶⁶ △고운재²⁰ △구종태⁴⁵
△권병식²⁸ △금한태⁶⁸ △김 건⁶⁹
△김관수⁶¹ △김교철²⁵ △김기열³⁰
△김성식⁴⁴ △김성환²⁵ △김연수⁶⁶
△김정규²⁴ △김종길²⁹ △김준화¹⁸
△김진배⁵⁷ △김진섭⁹ △남현일³²
△박 석²⁵ △박성규¹⁵ △박원규⁵⁰
△박종구²¹ △박학경⁴⁷ △방상우³¹
△변정수⁴⁰ △손재환⁴⁸ △송권영⁶⁵
△송문호³⁸ △송치영⁶⁹ △신승훈⁴⁷
△신용문⁶⁸ △오연수⁴ △오장섭²⁷
△오형근⁴⁸ △우상우¹⁸ △우재영⁷
△유재열³⁵ △유재천³¹ △유진석³²
△윤성민¹³ △윤영희⁶⁵ △윤재룡⁶²
△은민수⁶⁷ △이기호¹⁶ △이동훈³⁵
△이문영⁶⁷ △이병성² △이성길³⁴
△이원준⁶⁹ △이원호⁴³ △이윤로⁵⁰
△이재민⁶³ △이진선³⁶ △이찬복⁶⁷
△이춘호⁴⁶ △이한규²³ △이현섭²²
△장명웅⁴⁰ △장영섭¹⁴ △정시화⁶⁰
△정재성⁷ △정형택⁶ △조봉구¹⁹
△조석제⁶² △조용연²¹ △조희정⁶⁷
△진옥윤³² △최동만⁶⁶ △최병환⁶⁸
△최인호¹² △최재선⁹ △최종원¹⁶
△한성권⁷⁰ △황민하⁶⁷
◆AIP △고희수²⁵ △곽문연⁸
△김계동³⁶ △김상진³¹ △김장근¹⁵
△김재후²⁰ △김정영²¹ △김진수²⁹
△남귀현³ △박노택⁴⁴ △박인서¹²
△박종익²⁶ △서영복¹⁹ △손종구⁴⁴
△송태진²² △신용기⁹ △신현필¹³
△유길상⁹ △이문기¹⁶ △이세광⁴³
△이현영⁸ △이형세³⁷ △이희용⁴⁴
△임운철⁴² △장희전²⁰ △정성훈⁴⁴
△정연구³⁰ △정주용³⁷ △최용의⁴³
△한상규²¹ △허 열⁴¹ △황구연³⁸
◆ACAD △곽기현⁷⁰ △권도중⁴⁹
△김광수⁶⁸ △김덕영¹⁸ △김동찬¹⁸
△김만기⁷ △김성현⁴⁰ △김영준³¹
△김종해⁷¹ △김철규⁵⁹ △김행복²⁷
△김호연¹¹ △남종우³⁰ △노정기³⁶
△류도희⁷¹ △박권섭⁵⁶ △박남신⁷⁰
△박용암⁴³ △박찬국⁵⁴ △박해도⁶⁶
△배상철⁶⁷ △윤용인²¹ △윤원구⁷¹
△이강우⁶⁹ △이근일⁴⁰ △이길행⁷⁰
△이상철³³ △이승훈⁷¹ △이영희⁵⁷
△임대환⁶⁹ △전병순⁴² △전해성³³
△정영만⁷¹ △진인권²⁸ △차영준⁵²
△채명기⁶⁶ △채항석¹⁰ △최덕률⁶⁸
△최상철³⁶ △최수근⁵¹
◆ABP △강 원⁸ △강성진²⁷

△김현식²⁰ △박만규³⁴ △박인규¹⁰
△송윤진²⁰ △심상렬²³ △양병기³⁰
△오숙희²⁷ △이상탁⁴ △이정호³⁷
△조명현¹⁷ △조상익² △조용호³⁴
△황용창¹¹
◆SGS △강중원²⁰ △김용환¹⁶
△박정희¹³ △안영대²² △윤진환²⁴
△이재홍¹⁹ △이해식²³ △전우대²
△정해순³
◆CHCN △문순자¹¹
◆APC △이영세⁴ △최용상³
△홍기만³
◆HPM △고영선²⁶ △권차남⁵
△김민규²³ △김성민¹² △김종대¹⁶
△김홍구¹² △김황준⁵ △민충기²⁶
△박동호²⁶ △서정미⁷ △신경식¹¹
△심춘보²⁶ △양동근¹² △이난영²⁶
△이상완¹¹ △이재우²³ △이정현⁹
△이채동²⁶ △임일규¹ △전명덕¹
△정호용⁸ △최종환¹⁰ △최진호¹⁹
△황경수²³
◆AMPP △고영수¹⁰ △김경철²
△김상욱⁷ △남석희⁵ △류항범⁷
△방석관¹ △최익현²
◆AIC △구정민³⁰ △김영식²⁹
△김형준²⁴ △민홍식²³ △박주학²⁸
△서철모⁸ △조재욱³⁰ △조창희¹²
△최정길⁶ △한기식²⁷
◆AFB △권관주⁸ △김임수⁹
△김홍철⁹ △류형우⁹ △손 문¹⁰
△송홍수¹⁰ △우창식⁷
◆AMPFRI △권 순⁴ △김일동⁸
△배성현²⁶ △송병우¹³ △양동수⁶
△이공범²⁷ △이재근²⁷ △이춘희⁹
△장기봉²⁶ △정관희⁶ △정운길¹
△정지택³ △조봉기¹
◆ACPMP △김기식⁶ △김유진³
△김태용² △김희현⁶ △심형구⁴
△정종균² △조종수¹ △최정규³
◆FIP △고병숙⁷ △김성하⁶
◆GLP △강미모¹⁶ △권덕수¹⁵
△김병두¹² △김연식¹⁷ △김영도¹⁵
△박인성²⁰ △서승욱¹⁹ △송병원²⁰
△송원근¹⁵ △심상운¹⁴ △이용문¹⁷
△이재환¹⁶ △이창목⁷ △정동훈²⁰
△정학섭¹⁵ △차화철¹² △최윤성²²
△최재영¹⁹
◆ALP △곽상욱¹² △김기봉²
△김기식⁵ △김홍배⁴ △김홍주⁴
△문종복¹³ △서영세¹³ △소진세¹²
△손용근⁶ △송종률¹¹ △이동인¹³
△정영조⁸ △주정환¹³
◆ANMP △이재순³
◆SPARC △김 건⁸ △김달수¹
△김태근⁶ △최광종⁶
◆AFP △강병직⁸ △강영구⁸
△박수환⁷ △송효순⁷ △이원석⁷
△정기선⁷ △조동일⁸ △전학도⁸
◆ASP △박도규¹⁴ △박상호¹⁶
△배영훈¹⁷ △안준근⁹ △유병철⁸
△이재덕⁴ △이정근⁵ △정화영²⁰
△진영호²⁰ △한덕수⁹
◆IFP △김용배²

4 월 계 :	44,620,000원
평생회비 :	50,300,000원
입 회 비 :	1,180,000원
총 계 :	527,470,000원